

2016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도전과 발전

- 일시 : 2016년 11월 4일(금) 14:00~18:00
- 장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
- 후원 : 교문사 · 공동체 · 양서원 · 창지사



한 국 육 아 지 원 학 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본 교재는 교문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제법 쌀쌀해진 공기 탓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진 요즈음...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공연히 분주한 일상이 되기 쉽겠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육아지원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도전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 즉, 제 영역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연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다학문적 접근을 본질적 성격으로 합니다. 또한 본 학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등 육아지원에 관련 된 폭넓은 분야 간 학문적 의사소통 및 협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에 본 학회의 이러한 기본 철학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통합형 미래 인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문적 융합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확실합니다.

특히, 국립생태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이란 기조강연은 그 제목만으로도 기대와 설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학문간 융합의 실제적 사례인 ‘S-block 개발 및 활용’과 ‘교육현장에서의 융합교육의 실제’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 강연을 통해 새로운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2015년 12월부터 사단 법인화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용역(‘2016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예방교실’)을 법인 자격으로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로 이번 학회에서는 우수박사논문(계획서)에 대한 연구비 지급과 개인발표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에 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그를 위한 방향 모색, 더 나아가 실현을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심성경

학술대회 일정표

- 13:30~14:00 **등 록**
사회: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4:00~14:10 **국민의례 및 개회사**
심성경(한국육아지원학회장,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4:10~15:00 **기조강연 -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
최재천(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15:00~15:40 **주제강연 I - 스마트 기술 기반의 쌓기 놀이:
S-Block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5:40~16:10 **휴식 및 총회**
- 16:10~17:00 **Scholar Session & 포스터 발표**
1분과(501호), 2분과(505호), 3분과(201호)

▣ Scholar Session

시 간	1분과 (60주년기념관 501호) 사회: 조인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분과 (60주년기념관 505호) 사회: 원계선 (제주 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분과 (60주년기념관 201호) 사회: 최대훈 (서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6:10 ~ 16:35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미정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심성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박희숙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놀이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이승숙 (성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송나리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배지희 (성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16:35 ~ 17:00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자녀관에 관한 질적 연구 나영이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현장중심 대학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미술수업을 중심으로 고지민 (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양수경 (금호유치원)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유용식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 17:00~17:40 **주제강연 II – 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체험형
 융합교육의 실제**
 신상인(신우유치원 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17:40~18:00 **종합토론**
 김신영(백석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8:0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목 차

기조강연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	11
	최재천(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주제강연 I	스마트 기술 기반의 쌓기 놀이 : S-Block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	25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II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체험형 융합교육의 실제	43
	신상인(신우유치원 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Scholar Session (I)		
	•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61
	송미정(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의 자녀관에 관한 질적 연구	68
	나영이(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Scholar Session (II)		
	•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81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현장중심 대학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88
	고지민(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수경(제주한라대학교 금호유치원 원감)	
>>> Scholar Session (III)		
	•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99
	이승숙(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나리(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107
	유용식(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Ⅲ 포스터 발표 Ⅲ

1.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121
이해경(아이미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유치원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26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소영(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수경(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3. 만 5세 햇살반 유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유지와 변화	131
정효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개선요구-전라북도 지역 중심으로	135
김세진(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5. 영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 연구	139
노명숙(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송화진(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 이야기	143
조자연(인천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7.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46
김소리(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8.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148
윤성혜(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한미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 만 5세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에 관한 질적연구: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152
김도리(고감도어린이집 교사)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0.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및 공감 간의 관계	155
김희정(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백영애(전남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임유경(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문화 차이분석	161
김운삼(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구서연(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교수)	
12.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 인식	165
김은주(매곡어린이집 원장)	
진명희(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170
서연실(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14.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75
박경화(군산중앙유치원 교사)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181
■ ‘육아지원연구’ 논문 투고 규정	189
■ 제 7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192
■ 연수 이수증	

기조강연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

최재천(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기조강연 -

통섭형 인재와 따뜻한 방목

최재천(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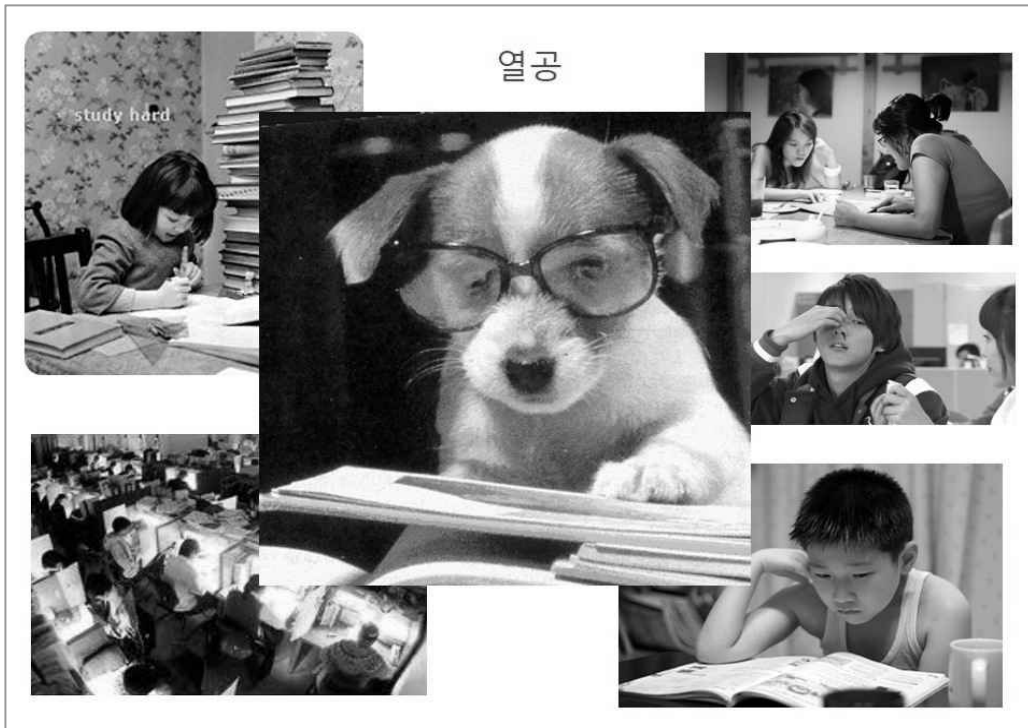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은 못 믿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사실







대학문국

大學問國

‘건국(建國) 100년’ 에서 ‘안국(安國) 100년’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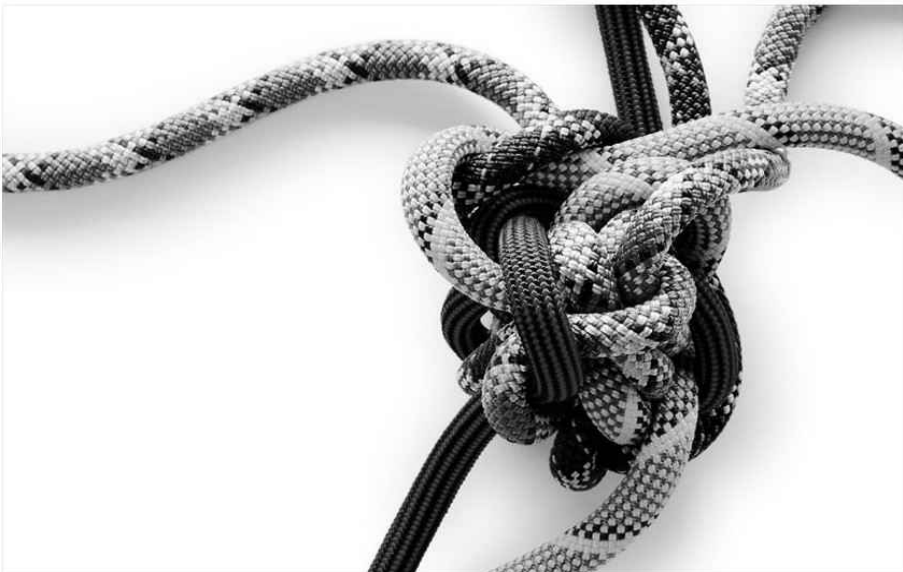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통섭형 인재가 왜 필요한가?



당면 과제의 복잡성
고령화와 노동인생의 장기화

Complexity of problems keeps increasing!



통섭형 인재가 왜 필요한가?



당면 과제의 복잡성
고령화와 노동인생의 장기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하고 있는 나라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직장을 대여섯 번씩 바꾸며
적어도 60~70년을 일하게 된다는데...



Consilience 통섭(統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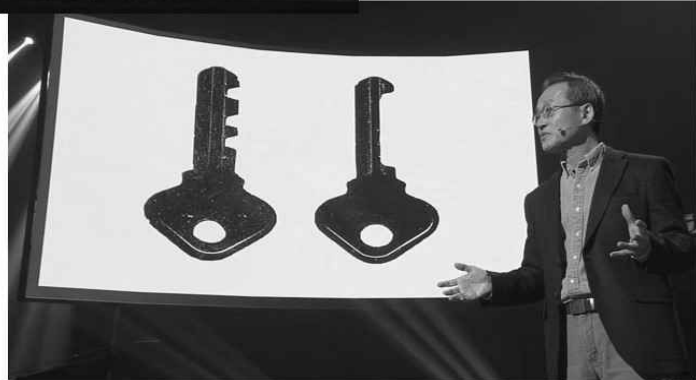
통섭의 시대,
21세기의 지식 혁명은 이 해에서 시작된다!
이 시대의 지적 거인 메드워드 윌슨이 제시하는
현대 학문의 위기와 전망





명견만리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결석 교육’
Master Key Education



책벌(冊閥)과 기획독서



이들이 진정 최고의 직업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방황”

Helicopter parents



따뜻한 방목



주제강연 I

스마트 기술 기반의 쌓기 놀이 : S-Block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스마트 기술 기반의 쌓기 놀이 : S-Block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배경

150년 전 Fröbel이 블록 체계를 유아교육에 도입한 이후, 블록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Tepylo, Moss, & Stephenson, 2015). 연구자들은 블록놀이가 유아의 문제해결력, 운동능력, 상상력, 사회성,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공간지각력과 같은 수학적 능력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Hirsch, 1996; Hanline, Milton, & Phelps 2010; Nath & Szűcs 2014;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5). 현대 유아교육 현장에서 블록은 교사들과 유아들에게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교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활용 빈도가 매우 높다(오은순, 1994; 지성애 외, 2009; NAEYC, 2015).

그러나 교실에서 블록을 활용한 놀이는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기보다, 교실 내 자유선택 영역의 하나로 개방적인 활동을 유아들이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진행하는 형태에 가깝고(Tepylo, Moss, & Stephenson, 2015), 이러한 기본적인 놀이의 양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Fröbel과 Hill의 이론과 디자인을 기초로, Pratt이 구성한 Unit Block 원형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조합에 따른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3/07/economist-explains-6>).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인 형태의 블록을 활용한 놀이가 시대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유아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 이 논문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대표적인 상업용 블록인 LEGO(<http://www.lego.com>)가 1990년대 시도하였던 사업 영역의 확장과 이어진 실패는 이러한 블록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된다. LEGO는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와 경쟁에 직면하여 사업영역과 제품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였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하여 LEGO는 전통적 재미인 블록의 ‘조립’을 다시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및 성인 등의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LEGO 제품의 개발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LEGO의 사례는 블록놀이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유아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노출되며, 최초 사용 시기 또한 점차 하향화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2013).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업의 일부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컴퓨터 매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Young & Behounek, 2006).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 미디어의 지속적인 노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2-5세 유아들의 미디어 노출에 있어 시간, 프로그램의 수준,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실생활 응용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에 따라 블록 놀이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의 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는 스마트기기를 과다 사용하는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는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블록 쌓기와 같은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있다(<http://www.telegraph.co.uk/education/educationnews/10767878/Infants-unable-to-use-toy-building-blocks-due-to-iPad-addiction.html>).

이러한 유아들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블록을 활용한 놀이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아교육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 다루어질 S-Block의 개발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2.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장난감 분석

미국 장난감 시장에서는 자녀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 1명당 소비 완구 금액의 증가로 인해 장난감/완구산업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코딩, 문제해결력 등 교육적 목적에 도움이 되는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형태의 장난감이 인기를 보이고 있다.

1) Code-a-Pillar

Fisher Price사의 Code-a-Pillar는 몸이 9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순서에 따라 로봇 애벌레의 움직임의 방향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는 유아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ttp://www.fisher-price.com/en_US/brands/think-and-learn/index.html).



2) Lego WeDo 2.0

교육용 로봇 Lego WeDo 2.0은 아동들이 레고를 이용하여 로봇을 조립하고, 로봇과 연동된 스마트 기기용 앱으로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기초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https://education.lego.com/en-us/elementary/shop/wedo-2>).

3) LEGO Mind-storm

LEGO Mindstorm은 사용자 지정의 프로그래밍 로봇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포함된 레고 키트이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형태의 컴퓨터, 센서 모듈, 모터 및 기계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레고 부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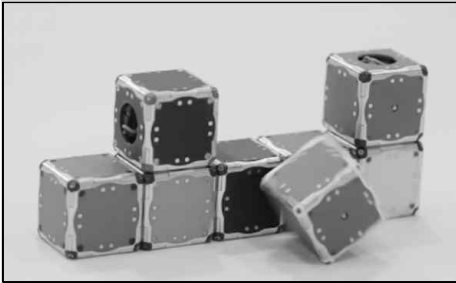
(<https://www.lego.com/en-us/mindstorms>)

4) Sifteo c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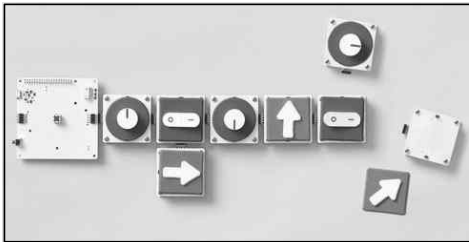
미국 MIT Media Lab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가속도 센서, LCD, 무선 통신 모듈을 내장하고 있는 작은 블록형 미디어이다. 블록을 상호 조합하고 접촉시킴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연령 아동의 미디어 활용에 응용 가능하다(https://en.wikipedia.org/wiki/Sifteo_cubes).

5) M Blocks



M Blocks는 MIT에서 개발한 블록 모양의 로봇으로 점프, 뒤집기 및 결합을 통해 물체를 자체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다. 블록 내부에 자석 및 플라이휠이 내장되어, 이를 사용하여 서로 결합할 수 있으며, 제작 크기에 따라 실제 건축 작업에도 이용이 가능하다(<http://ppm.csail.mit.ed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Blocks,%20Momentum-driven,%20Magnetic%20Modular%20Robots.pdf>).

6) Google Project Bloks



MIT의 tangible computer를 바탕으로 설계된 아동대상의 블록형 프로그래밍 도구로, 3가지 형태의 블록을 간단하게 결합하여 악기에서부터 자동화된 장난감까지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 교육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https://projectbloks.withgoogle.com>).

표 1 스마트 장난감의 특성 비교

	Code-a-Pillar	Lego WeDo 2.0	LEGO Mind-storm	Sifteo cube	M-Blocks	Google Project Bloks
제품구성	조합형 로봇	LEGO 블록, 스마트기기앱	LEGO 블록, 중앙처리장치	스마트 블록	큐브형 로봇	조합형 블록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없음	LEGO 호환	LEGO 부분적 호환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 상호작용성	아날로그 상호작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상호작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상호작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상호작용	아날로그 상호작용	아날로그 상호작용
사용연령	3-6	7-	15-	4-	19-	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장난감들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6). 특히, 미래사회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교육시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미래창조과학부, 2015)에 따라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논리, 수학적 사고력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구와 장난감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장난감들은 아동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디자인되며, 확장성을 가지며, 물리적인 실물 블록을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장난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장난감 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 초등학생 이상의 대상 연령, 실험적인 제품의 성격, 가격 문제, 유아 사용자 접근성의 어려움 등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된다.

3. S-Block 개념

본 발표에서 소개하는 S-Block은 전통적인 형태의 LEGO 블록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그 기능이 블록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Internet of Things(IOT) 네트워크로 무선 연결한 교육용 스마트 장난감이다. S-Block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주관 하에 공동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개발되었다.

S-Block의 개발 목적은 유아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설계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블록을 활용하는 실물 중심의 직접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개발 배경

S-Block는 기존 스마트 장난감에 대한 분석과 LEGO의 2대 회장이었던 Christiansen의 LEGO의 10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가 구성되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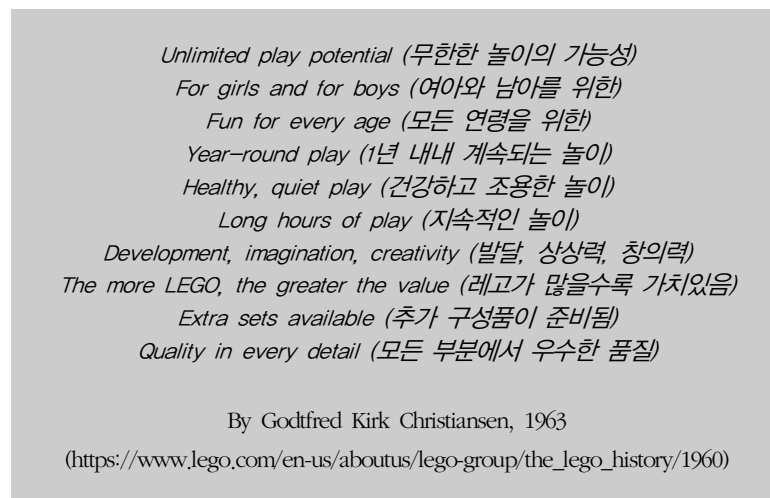


그림 1 LEGO의 10가지 원리

2) S-Block의 특성

S-Block의 기존의 스마트 장난감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험의 조합 : S-Block는 전통적인 블록 디자인이 가지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오감을 기초로 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블록이 IOT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동된다. 특히 메인 화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의 물리적인 경험을 통하여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기존 장난감 시스템과의 호환 : S-Block는 LEGO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며, 일정 거리 내에서 무선 IOT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LEGO 블록과의 어

떠한 형태의 조합도 가능하다.

- 직관적인 동작 및 관리 : 블록을 서로 끼우고 누르는 것만으로 블록의 확장 기능을 사용가능하며, 블록을 서로 연결하여 간단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3) S-Block의 기능

S-Block는 기능에 따라 sensor 블록과 action 블록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Sensor 블록은 무선 IOT 네트워크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며, Action 블록은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구체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련 감각 영역별로 시각, 청각, 촉각 블록군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S-Block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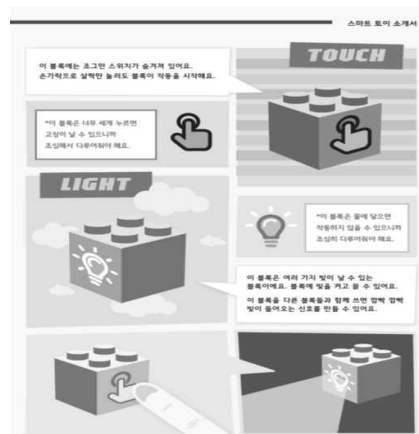
시각  카메라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 빛 블록 LED Matrix 블록	• 시각 영역의 블록군은 카메라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 빛 블록, LED Matrix 블록으로 구성된다. • 카메라 블록의 사진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전송된다. • 빛 블록과 LED Matrix 블록은 신호를 받아서 특정한 색이나 문자/숫자 등을 켜는 역할을 한다. • action block: 빛 블록, LED Matrix 블록
청각  마이크 블록 소리 블록	• 청각 영역의 블록군은 마이크 블록 및 소리 블록으로 구성된다. • 마이크 블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리가 들릴 경우 작동 신호를 보낸다. • 소리 블록은 신호를 받아서 다양한 음악이나 동물 소리 등을 재생한다. • sensor block: 마이크 블록 • action block: 소리 블록
촉각  리모컨 모듈 터치 블록 모터 블록 거리측정 블록	• 촉각 영역의 블록군은 리모컨, 터치 블록, 모터 블록, 거리 측정 블록 등으로 구성된다. • 리모컨 및 터치 블록은 누르는 동시에 작동 신호를 보낸다. • 모터 블록은 신호를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킨다. • 거리 측정 블록은 일정 거리 이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작동 신호를 보낸다. • sensor block: 마이크 블록 • action block: 소리 블록

4) S-Block의 구성

S-Block 시스템은 교육용 시나리오, 유아용 자료집, 블록 본체 등으로 구성된다. 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 교육용 시나리오 사례

제목	필요 기능	필요 블록	유아 설명	자료집 이미지
블록으로 집을 꾸며 보아요	• 블록으로 집을 구성한다 • 문을 열고 레고 인형을 집어 넣으면 디스플레이 블록에 인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 센서 블록 1 • 카메라 블록 1 • 디스플레이 블록 1 • 집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일반 블록 • 블록 인형 • 블록 동물	블록으로 집을 만들어 주어요. 그런데, 스마트 블록을 사용하면 친구가 문을 열 때 마다 친구의 얼굴이 창문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센서 블록과 카메라 블록을 문 뒤에 설치해요. 그리고 창문이 들어갈 곳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어줍니다. 마당에 강아지와 닭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집 앞을 지나면 강아지의 모습이 디스플레이 블록에 나타나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블록으로 집을 지을 때, 문이 열리는 상황에서 인형이 찍힐면 어떤 위치에 디스플레이 블록, 센서블록, 카메라 블록을 부착해야 하는지 제시를 해주어야 한다. 센서블록 > 카메라블록 + 디스플레이 블록의 연결 경로를 제시한다. 센서블록과 카메라 블록의 방향을 바꾸면 마당에 지나가는 동물의 모습도 디스플레이 블록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는지 제시한다.



유아용 자료집 사례

4. S-Block의 교육적 활용

S-Block의 활용은 유아들이 논리적인 설계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영역을 새로 구성하면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블록을 조합하는 실물 중심의 직접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새로운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테크놀로지 중심의 장난감이 아니라,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LEGO 시스템과 호환을 이루며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 활용 가능하다.

S-Block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는 S-Block를 활용한 유아들의 놀이 사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교사의 S-Block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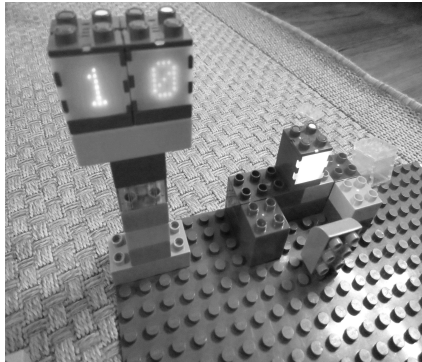
1) 유아 활용 사례

유아들의 S-Block 사용에 관한 관찰은 서울 지역의 만 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2학급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8주간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 1단계 활동 (1, 2 회차 제시)

제시 내용 : 교사의 수업 중 스마트 블록 개념의 설명

LED 블록의 제시 : 1가지 기능에 초점을 둔 구성과 기능활용



유아들이 사전 경험이 없는 블록에 대하여 어려움 없이 즉시 놀이에 활용할 수 있었다. LED 블록의 작동을 조작하면서 간판 형태의 구조물에 숫자가 나타나게 하는 구성물이나 동물에 빛이 나는 블록을 결합하여 구조물을 만들고, 점멸을 시키면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 2단계 활동(3, 4 회차 제시)

2개 이상의 블록 기능의 복합적 조합 구성

- 모터블록으로 할 수 있는 것

모터블록을 제시하며 모터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하자 바람개비, 풍차, 기차, 신호등, 전기구이(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함), CCTV(움직이는)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 모터 블록과 소리 블록을 함께 제시

모터블록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소리블록과 함께 제시하자 동물농장의 야자수(움직이는 것)와 동물들이 타고 가는 기차와 기차길을 구성하였다. 소리블록은 기차가 지나가고 있음을 스위치를 눌러 표시하고, 야자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모터블록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스위치를 한 번 더 눌러서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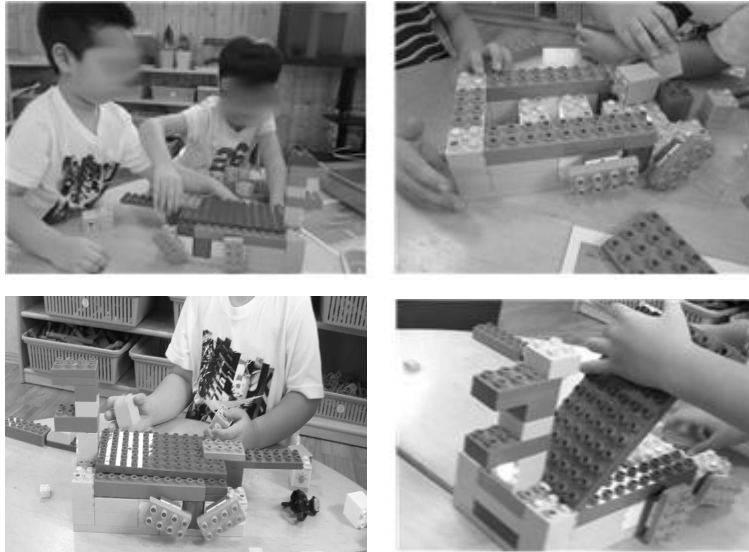
일부 유아들은 모터블록을 활용하여 스위치로 조절하며 로봇의 팔을 움직이도록 조절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 3단계 활동(5, 6, 7, 8 회차 제시)

3개 이상의 기능을 활용

목표에 따라 놀잇감을 종합적으로 설계 및 구성



- 모터 블록과 소리 블록, LED블록을 함께 제시1

교실에서 우리나라 주제에 맞게 현재 우리나라의 인물들에 대해 소주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아들이 이순신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모터블록으로는 거북선의 좌우 양옆의 노를 저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LED블록으로는 거북선이 바닷길을 지나가는데 불을 비춰 주는 역할을 하며, 소리가 나는 블록으로는 배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음으로 사용하였다.

유아들이 거북선의 모형에 대해 화보를 보며 구성하고, 소리가 나는 블록과 LED블록 등을 활용하여 거북선을 구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모터 블록과 소리 블록, LED블록을 함께 제시2

동물원을 구성하며 모터보트로는 야자수 나무가 움직이는 모습, 소리로는 동물원을 환영하는 모습을 구성하였다. 유아 A와 B가 함께 블록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활용하였다. 블록의 ON/OFF 스위치는 유아들이 알고 있어 유아 주도적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유아들의 8회기에 걸친 S-Block 사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활용 유형이 나타났다. 첫째, 유아들은 도입 단계에서 단순히 1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에서 점차 복합적인 기능을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유아들은 블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을 생각하고, 그 목적

에 따라 블록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조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유아들이 블록을 사용함에 있어 기존에 익숙한 LEGO블록과 동일한 것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활용유형은 기존의 테크놀로지 기반의 장난감이 가지는 사용의 불편함과 제한적인 사용목적에서 오는 한계점과 차별화된다.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블록이 가지는 개방적인 형태의 자유놀이와 다르게, 방향성과 사고과정을 부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2) 교사 인식 인터뷰

S-Block를 활용한 학급의 교사 2인에게 1) 유아의 블록 활용 경험과, 2) 교사의 블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사의 S-Block 활용 경험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처음 접한 스마트 블록은 아주 신기하고 흥분되는 놀잇감이었다. 탐색 기간에는 아이들 전체에게 소개해 주고 스마트 블록을 만져보며 사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작동 시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 A, 2015. 7).

교사들은 유아들이 S-Block의 활용에 있어 높은 흥미를 보이며, LEGO와의 호환성을 인식하여 손쉽게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한 가지 스마트 블록을 이용하여 듀플로 블록과 접목하여 단순한 놀잇감을 만들었고 놀이가 확장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점차 상상력을 가미한 놀이들이 이루어 졌다(교사 A, 2015. 7).

교사들은 S-Block를 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블록을 몇가지나 제시하는가에 따라 유아들의 경험 확장의 폭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처음에는 위로만 돌아가던 모터의 방향을 옆으로 아래로 구성하여 위치를 조절하기도 하고, 원에 있는 커다란 기본 판을 제시해 주니 축구 경기장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각자가 만든 우주선이 모여 있는 기지를 만들기도 하였다(교사 B, 2015. 8).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이 S-Block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정된 형태의 블록에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모터블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스스로 움직이는 블록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동작을 설계하여 스토리를 부여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유아들의 논리적인 사고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흥미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놀이가 가능하지만, 아직 콘텐츠가 부족한 편이다. 소리 블록에서 나오는 소리의 종류가 제한되어있고, LED 블록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이나 문자도 제한이 있다(교사 A, 2015. 7).

오감을 사용하여 LEGO를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기존의 블록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외형 면이나 소리의 보완도 필요하다 (교사 B, 2015. 8).

교사들은 S-Block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하여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감각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기능적으로 콘텐츠의 확장과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사들의 S-Block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S-Block에 대하여 몇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적절한 사용환경을 구성할 경우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감각과 블록을 활용한 놀이를 하고, 단계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경험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사고를 순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목표와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5. 논의

본 발표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장난감인 S-Block의 기본 개념과 활용방향을 설명하였다. S-Block는 적절한 교육접근과 연계하에 활용될 때, 유아들의 논리.수학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활용방안은 테크놀로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의 교육 프로젝트 구현에 초점을 둔 LEGO Education WeDo 2.0(<https://education.lego.com/en-us/elementary/shop/wedo-2>)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발표자는 기존의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장난감의 개발과 보급과정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S-Block을 가정이나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현장 적용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S-Block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아교육 현장에 논의점을 제시하고 풀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블록과 블록놀이 영역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에 과다하게 노출된 유아들에게 단순한 금지/사용의 프레임을 넘어서, 미디어 사용 조절을 스스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미래 교육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그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S-Block이 교육현장의 이러한 고민들을 풀어 가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미래창조과학부(2015).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 삼성경제연구소(2013). 전통과 변화의 조화, 레고. SERI 경영노트, 189, 1-12.
- 오은순(1994). 블록의 유형과 수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성애, 이규림, 안지영, 이연주, 조은정(2009). 주제 중심 블록놀이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과 공간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3(1), 67-86.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2013).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 한국무역협회(2016). 2016년 미국 완구시장의 키워드 - Tech, Family, STEAM.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3/index.jsp?sCmd=VIEW&nationalCode=US&nPostIndex=1740806> 에서 추출.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Media and young minds. Retrieved October 6, 2016 from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early/2016/10/19/peds.2016-2591>.
- Economist. (2013, July 10). How do unit blocks help children learn? Retrieved October 3, 2016 from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3/07/economist-explains-6>.
- Hirsch, E. S., (Eds.). (1996). *The block book*. Washington, DC: NAEYC.
- NAEYC. (2015). Ten Things Children Learn From Block Play. Retrieved Oct 5, 2016 from http://www.naeyc.org/yc/10_things_children_learn_block_play.
- Nath, S., & Szűcs, D. (2014). Construction play and cognitive skill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abilities in 7-year-old children. *Learning and Instruction* 32, 73-80.
- Telegraph. (2014, April 15). Infants 'unable to use toy building blocks' due to iPad addiction. Retrieved October 10, 2016 from <http://www.telegraph.co.uk/education/educationnews/10767878/Infants-unable-to-use-toy-building-blocks-due-to-iPad-addiction.html>.
- Tepylo, D. H., Moss, J., & Stephenson, C. (2015). A developmental look at a rigorous block play program. *Young children*, 70, 18-25.
- Young, D., & Behounek, L. M. (2006). Kindergartners use powerpoint to lead their own parent-teacher conferences. *Young Children*, 61(2), 24-26.

주제강연 II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체험형 융합교육의 실제

신상인(신우유치원 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체험형 융합교육의 실제

신상인(신우유치원 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I. 필요성 및 배경

1. 입시와 성적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

1)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인성 함양

- (1)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2) 미래사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줄 아는 바른 인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요구

2) 2016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강화 추진

- (1) 누리과정 유치원의 자유선택 활동을 주 1시간이상 배정하고 하루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15.12.07 서울연합뉴스 발췌]

2. 운동부족으로 인한 소아관련 질병(소아당뇨, 소아비만, 성조숙증) 증가

- (1) 2~5세 사이의 유아기 비만같은 경우 26~41%정도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
- (2) 2004년(남 12%, 여 7.3%) → 2010년(남 9.1%, 여 16.1%)으로 특히 여학생이 2배 이상 증가[한국일보 2015.11.30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 (3) 성조숙증 증가 내용

3. 직접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영향

- (1) 꾸준한 운동은 뇌기능 활성화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체력수준과 학업성적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Grissom,2005)]
- (2)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안정감, 행복감 유발 및 자신감, 수업집중력 향상 등 수업태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수업태도 긍정적영향 (Francois & Shephard, 2010;Flook et al.,2005)]
- (3) 신체활동, 스포츠 활동은 건강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스포츠의 긍정적 나비효과 생활 속 스포츠의 발견 2016.08.30. 이노션 월드와이드]



II. 이론적 근거

1. 유아의 운동발달단계

- (1) 유아 시기는 대근육을 사용하는 기본 움직임의 발달 단계에 해당됨
- (2) 기본움직임기술은 초기단계, 기초단계, 성숙단계로 세분화되며, 초기단계는 만 2세에서 만 3세가 해당되고 미숙한 움직임을 보임
- (3) 만 4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기초단계는 협응능력이 많이 향상되며, 조절력이 증가함
- (4) 6세에서 7세까지 해당되는 성숙단계는 성인의 형태와 유사하게 발달되나 수행 능력은 부족하고 개인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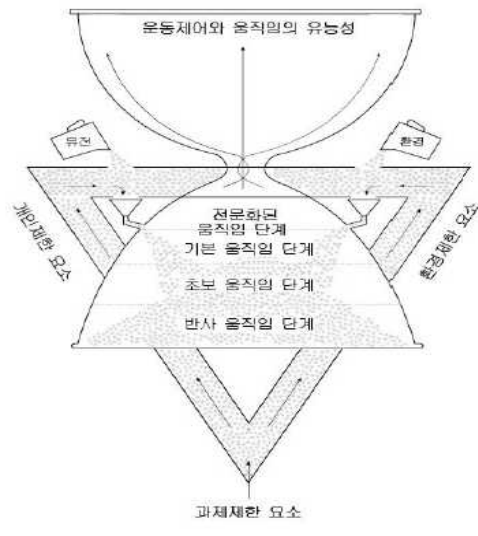


그림 1 운동발달단계(Gallahue & Ozmun, 2002)

2. 유아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교과부, 2011)

- (1) 첫째, 존중과 개인적 책임감을 포함한 협력은 미국의 인격교육 학자인 Lickona(2006)가 인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덕목으로 주장하면서, 이 두 덕목에서 여러 인성덕목이 파생되어짐
- (2) 둘째, 배려와 나눔은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덕목임
- (3) 셋째, 질서는 민주사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덕목으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유아기부터 길어주어야 하는 덕목임
- (4) 넷째, 효는 한국의 전통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임



그림 2 유아 인성교육의 덕목

3. 유아 신체활동에 대한 권고(오수학, 2009)

오수학(2009)은 유아 신체활동 측정의 최신 경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강조함

- (1) 신체활동과 체력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원하고 동기유발 필요
- (2)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효과가 큰 신체활동이나 체력종목 도입 필요
- (3) 교사가 모두 주도하는 유아체육보다 신체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활용 필요
(예, 보수계, 심박계 등)
- (4) 체지방 정보를 측정하여 부모에게 통보하고, 체력평가 결과를 부모에게 제공 필요
- (5) 유아들이 힘들어도 즐겁게 참여하고, 도전심과 목표수준 도달을 위한 전신 대근활동의 체력운동 필요
- (6) 신체활동은 과학, 음악, 언어 등이 접목된 통합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통합교육 내용 개발 필요
- (7) 유아교육기관에 신체활동 측정공간 확보 필요

4. 프로그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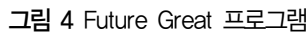
1) 교과부,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1) 교과부(2009)는 초·중·고등학생의 신체활동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체력장제도를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로 새롭게 변경하고 측정장비 도입을 통한 체력측정,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연계된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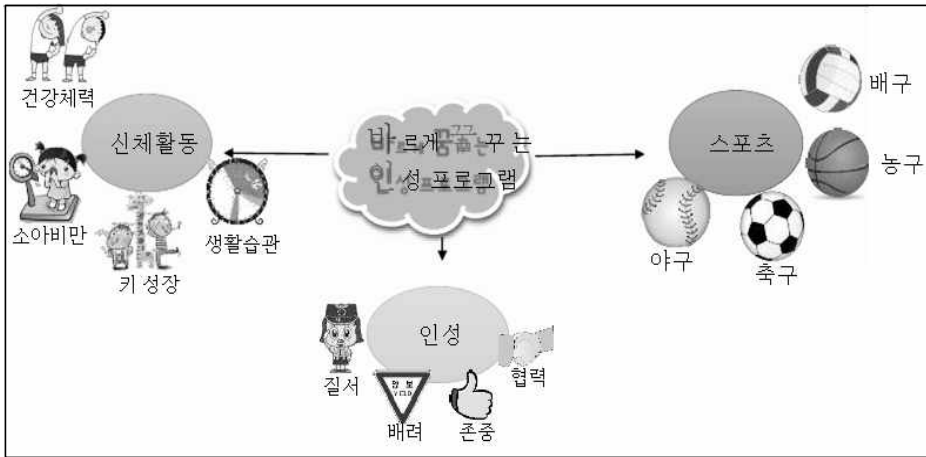


그림 3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흐름도

- (1) 스포츠와 인성 융합교육프로그램으로 축구를 통해 스포츠재능은 물론 스포츠활동과 일상생활의 인성 및 건강체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
- (2) 기초과정(1-2학년), 기본과정(3-4학년), 심화과정(5-6학년)으로 총 3개 과정으로 구성, 과정별로는 4개 스텝으로 구성



48



2. 주요 내용

(1) 인성체조

성장판을 자극시켜주는 운동동작으로 구성되어, 인사체조, 양보체조, 배려체조 등 인성덕목을 주제로 한 체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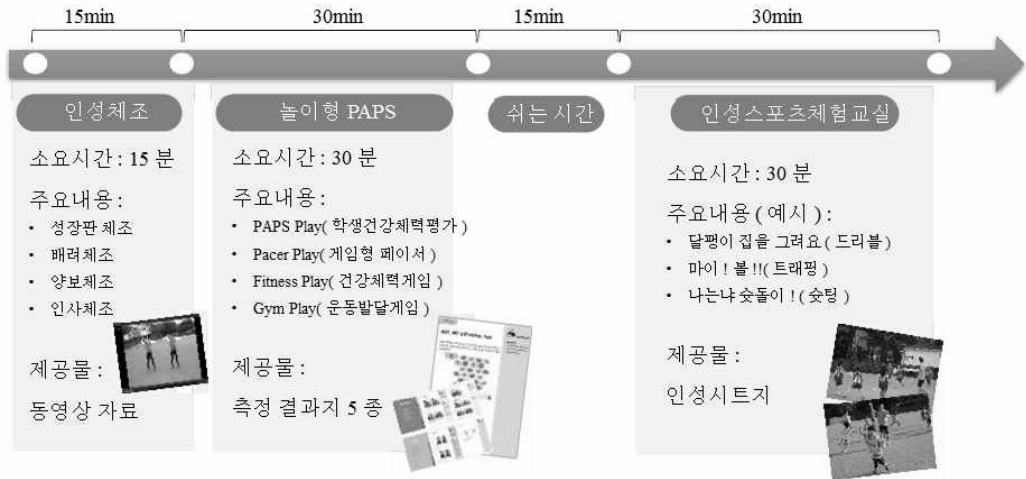
(2) 놀이형 PAPS (학생건강체력평가)

초등교육부터 시행되는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필수항목을 적용 시킨 프로그램으로써 측정을 게임형식으로 전환하여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PAPS 프로그램

(3) 인성스포츠체험교실

실제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친구들과 함께 특정 스포츠를 체험해 봄으로써, 스포츠 기술뿐 만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스포츠맨십, 규칙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해보고 배워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운영 Process



4.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인성체조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즐겁게 하는 인성 덕목별 인성 체조



운동 전 준비 운동의 중요성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 동작 선별

즐기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패턴운동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건강체조

올바른 인성을 다지기 위한 인성구호

2) 놀이형 PAPS (학생건강체력평가)

마음껏 뛰어 놀면서 하는 건강 체력 측정



PAPS Play (학생건강체력평가)

Pacer Play(게임형 페이스러)

Fitness Play(건강체력게임)

Gym Play(운동발달게임)

3) 인성 스포츠 체험교실

정부정책 방향성에 일치하는 새로운 축구 매개 프로그램



108 여 가지의 신체활동 교육내용 수록

공 다지기 등 미취학아동 눈높이에 맞춘 기술교육

열정, 성실, 노력, 최선을 통한 인성교육

스포츠체험을 통한 신체활동의 긍정적 인식 형성

일상생활예절과 스포츠예절의 연계 교육

IV. 기대 효과

(1) 올바른 가치관 함양 :

체험과 실천을 통해 몸으로 배우고 눈으로 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함양

(2) 소아 관련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장(키 성장 , 성조숙증), 비만 (소아당뇨 , 소아비만) 등과 관련된 소아질환을 예방하고 ,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켜 꾸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아이들의 체력수준을 측정 및 분석, 스포츠 체험활동 모습을 관찰하여,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함.

(4) 스포츠 융합교육

스포츠 융합교육을 통한 지(知), 덕(德), 체(體)의 조화로운 발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등 건강증진.

#. 첨부 1. 신우유치원 스포츠 체험형 융합교육 운영 사례

1) 인성 체조



2) 놀이형 PAPS



3) 인성 스포츠 체험



#. 첨부 2. SQ(Sports Quotient) 프로그램 소개

1. 개요

- 1) 건강한 몸과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발육상 태, 건강체력, 운동발달, 스포츠 재능 발굴 등 놀이형으로 측정하고 인성과 사회성이 발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형 건강 프로그램



한 사람이 현재 지니고 있는 다면적 운동소양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SQ는 스포츠관련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SQ를 증진시킴으로써 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스포츠의 만남, Edu Spo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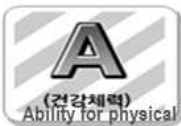
새로운 사회적 핵심 가치 SQ(Sports Quotient)



2) Network



2. 세부 프로그램

	평가항목	구성항목	
 (스포츠지식) Sport Knowledge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 건강활동 - 도전활동 - 경쟁활동 - 표현활동 - 여가활동	
 (스포츠예절) Manners for sport	최선을 다하고 타인배려와 용기 있는 태도 등에 대한 평가	- 운동전념 및 최선다하기 - 협력적 태도 - 규칙준수 및 판정준중 - 타인배려 - 용기있는 태도	
 (건강체력) Ability for physical fitness	체성분측정 및 건강체력 평가	- 심폐지구력 - 근력 · 근지구력 - 유연성 - 순발력 - 체지방	
 (여가태도) Recreational attitude	여가활동에대한 만족, 이해, 행복도	- 여가활동 - 여가만족 - 여가제약 - 행복도 - 여가이해	
 (야구기능) Talent for Baseball	스포츠기능 평가	- 배팅 - 주루 - 송구 - 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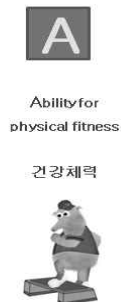


1) S(스포츠 지식), M(스포츠 예절), R(여가 태도)



SMR영역은 설문지로 진행

2) A(건강 체력)



A영역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체지방은 전문인력이 측정

3) T(야구기술 능력)



Talent for Baseball
야구기술 능력



T영역은 송구,캐치,주루,배팅은 선수출신 전문 코치진이 측정

2014년 4월 25일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프로그램으로 선정



선정대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등

※신청자격 제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 단체(사교육기관 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교육기부인 증제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 및 '교육기부 동아리'로 지정하는 제도

※교육부 제2011-16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2011.3.14, 제정)

Scholar Session (I)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미정(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관에 관한 질적 연구

나영이(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operative Food Art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Prosocial Behavior

송미정(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강사)**

심성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유아기는 비합리적이고 억제되지 않은 상징적 사고가 대표되는 전 조작단계로써, 창의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최수현, 2010). 이 시기에 창의성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증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가 창의성 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Torrance, 1975), 누리과정에서도 현대사회에서 성장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써 창의성 증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아의 창의적인 표현을 격려할 수 있는 활동 매체를 살펴보면 산이나 들, 산책길, 운동장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 열매, 조개껍질, 벼짚, 모래 등이 있다. 이러한 자연물은 한정된 표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재료로 주로 미술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김혜원, 2015; 정은정, 2007). 조혜진(2015)은 새로운 미술도구로 흥미있고 친숙함을 주는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식재료 미술활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적고, 교사 중심이 아닌 유아가 스스로 재료를 쉽게 재구성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선경, 송미정(2016)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미술활동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 유아의 입체표현력이 증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smj9374@naver.com

진됨을 밝힌 바 있으며, 식재료의 색과 형태, 맛과 향이 주는 다양함을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 미술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아기 미술활동은 협동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재료나 도구 사용에 있어 또래와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배우며, 서로 돕는 경험을 하게 되고(박보미, 2011), 개방적인 탐색과 표현 기회의 제공, 또래 간 소통과 협력 활동 기회를 갖게 된다(양새롬, 201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식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은 개별적 미술활동 보다 협동적 미술활동에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을 돕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식재료의 다양한 특성과 미술의 창의적 측면을 살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트와 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활동으로 푸드아트를 들 수 있다. 푸드아트는 음식과 예술이 합쳐진 입체표현의 한 장르로 다양한 영역들과 목적에 맞게 융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이정연, 2006), 실수를 했거나 표현을 수정하고 싶을 때도 특별한 규칙 없이 유아가 스스로 재료를 다시 놓아보며 쉽게 재구성을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협동적 푸드아트란 5~6명의 유아가 집단을 이루어 표현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서로 협동하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 식재료는 창의적인 표현과 또래와의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을 고안·실시하여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북 J시에 소재한 A유치원 만 5세 22명은 실험집단으로 B유치원 만 5세 유아 22명은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정하였으며, 두 기관 모두 중소형아파트와 주택이 함께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과학기술부, 2012)에 따라 동일한 생활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일과운영 및 흥미영역 배치가 유사하다.

2. 연구도구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경원(2010)이 개발한 만 4~6세 대상 유아용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창의성의 주요 척도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김영옥(2003)이 개발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정척도(PBSYC)를 사용하였으며,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연구, 검사자 훈련 및 예비검사, 교사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총 16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5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총 12주간 실험집단에 대해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은 누리과정(과학기술부, 2012)의 생활주제 및 주제를 고려하여 조혜진(2015)과 지현주(2012)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 1주를 기본단위로 계획하기 - 밑그림그리기 - 표현하기 - 공유하기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하기는 월요일에 실시하며 표현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표현내용 및 재료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밑그림그리기는 화요일과 수요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실시하며 계획하기에서 정했던 표현주제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보는 단계이다. 표현하기는 목요일에 실시하며 각 표현주제별로 선정된 밑그림을 가지고

표현해보는 단계로 작품이 완성 되면 교사가 사진을 찍어 주고 완성된 작품의 식재료 중에서 먹어 볼 수 있는 재료들은 함께 시식해 본다. 공유하기는 금요일에 실시하며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의 결과물인 작품사진으로 팀별 설명판을 만들어 소개하고 감상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4. 자료분석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 하고, 연구문제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증가분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두 집단의 창의성에 대한 동질성 파악을 위해 창의성 사전검사 평균 점수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35$) 두 집단 유아의 창의성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창의성 전체 점수에 대한 증가분은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43$, $p<.001$). 사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M=46.65$ 통제집단은 $M=46.25$ 이었으나, 사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M=54.85$, 통제집단은 $M=49.85$ 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M=8.20$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M=3.55$ 의 증가에 그쳐,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질성 파악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 사전검사 평균 점수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09$) 두 집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전체 점

수에 대한 증가분은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0.15$, $p<.001$). 사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M=2.47$, 통제집단은 $M=2.59$ 이었으나, 사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M=3.87$, 통제집단은 $M=2.67$ 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M=1.40$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M=.08$ 의 증가에 그쳐,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은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 모든 하위영역에 걸쳐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본 연구에서 유아 창의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결과는 푸드아트 경험이 유아의 자유로운 표현활동과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한 윤명자(2013)의 연구와 푸드아트를 통해 조형적 요소를 응용하여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창의적 표현이 향상됨을 보고한 최정옥(2010)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료를 만져보고 두드리고 냄새를 맡는 과정 등 미술재료의 탐색활동으로 유아의 창의성을 살펴본 최수현(2010)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은 기존의 미술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방식을 창조해봄으로써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은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 모든 하위영역에 걸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본 연구에서 유아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해 일반 미술활동을 한 집단과 푸드아트 활동을 진행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효과를 밝힌 조은희(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며, 협동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장영은(2006)의 연구, 협동적 미술활동 과정에서 또래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나누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와주며 토의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 되었다는 공영애(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에서 유아는 또래와 함께 토의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식재료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고, 친구와 도움을 주고 받으며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

결해 나갔다. 이렇듯 유아가 자율적인 협동 분위기 속에서 개방되고 허용적인 의사소통 기회와 작품표현 기회를 경험하고, 또래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후속적인 효과 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12주 동안 12회기의 활동을 고안·실시하였으며, 장기적인 연구와 유아의 행동 및 태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푸드아트를 활용한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영애(2008). 협동 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개발연구. 아동학회지, 24(5) 105-118.
- 김혜원(2015). 자연물을 활용한 협동 조형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3~5세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박보미(2014). 협동적 조형활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새롬(2013). 미술요소중심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언어능력,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자(2013). Food-Art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미술표현능력과 창의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송미정(2016). 식재료 탐색을 통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입체표현력과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7(2), 333-355.
- 이정연(2006). 푸드아트테라피. 서울: 신정.
- 전경원(201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정은정(2007). 아동미술교육에서 재료의 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2015). 푸드아트를 통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미술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현주(2012). 조형 예술적 관점에서 본 푸드아트의 장르적 특성 및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은(2006). 미술활동을 통한 소집단 협동학습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2016).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현(2010). 미술재료 탐색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옥(2010). 푸드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orrance, E. P.(1975). Creativity research in education: Still alive, In I. A. Taylor, & J. W. Getzels(Eds.), Perspectives in creativity, 278-296. Chicago: Aldine.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관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s
view on children

나영이(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 국가 간 이민현상은 경제적 불균형,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 법적 권리의 신장 등으로 더욱 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다문화가정의 빠른 증가로 인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여성이 가장 많고(58.6%), 베트남 여성이 두 번째이며(19%), 그 뒤를 이어 필리핀(5.7%), 일본(4.3%), 캄보디아(2.1%), 몽골(1.1%) 여성 순이다(여성가족부, 2015).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중국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의 이민 역사가 중국에 비해 짧고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숫자이므로 한국 내 결혼이민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수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3.5배 이상의 숫자를 기록했다. 베트남 결혼이민가정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베트남 결혼이민가정의 자녀 수도 2007년에 5천 명에 이르던 것이 2015년에는 11배 이상인 57,856명으로 증가되어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수의 27.8%를 차지했다. 그런데 베트남 결혼이민가정 자녀들의 경우 타국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가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 perfink@hanmail.net

간 화목정도와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정도가 낮으며, 부적응 수준은 높게 나오는 등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영주, 2007 ; 전경숙, 송민정, 2011). 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의 모성정체감 수준과 자녀애착 정도는 높고(정갑성, 최정순, 2010), 타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가족과의 갈등,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자녀로 인해 위로 받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연구(팜티웬짱, 김영순, 박봉수, 2014)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 혹은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 관념 및 관점,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하는 자녀관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백혜리, 2005). 자녀관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주며 부모 양육 행동 및 부모의 상호작용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영애, 1973; 임정미, 이명조, 2000; Becker, 1964; Miller, 1988; Scheafer, 1965). 나아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탐구하는 일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다(박홍선, 박경란, 1998). 이상과 같이 부모의 자녀관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녀교육 시 부모가 확신을 갖고 자녀교육의 방향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녀관은 부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과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바가 반영된 생각을 모두 포함하는 신념과 가치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들의 자녀교육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며 자녀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국적별 결혼이민가정 중에서 자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자녀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은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2.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결혼이민가정의 자녀교육 문제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이경화, 임희정, 2012) 연구자는 결혼이민가정을 직접 찾아가 자녀들을 참여관찰했고, 결혼이민여성들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관에 대해 심층면담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7박 9일간 베트남 외가를 다녀 온 10가정의 가족들로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10명과 그들의 유아 및 아동기 자녀 21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가정 중에서도 연구자들과 면담을 해야 하므로 Maxwell(1996)의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정을 선정했다.

* 한국여성재단에서 2013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엄마나라를 방문하고 교육적으로 배려한 지원 사업으로 2013년~2015년 동안 베트남 결혼이민가정 67가정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외가방문을 지원한 가정 중 자녀의 연령이 만 5세~7세인 경우 우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7박 9일간 베트남에 다녀왔고, ‘외가방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은 베트남어, 음식, 전래동화, 의식주 생활 등 베트남에 대해 배웠고, 베트남 현지 프로그램에서는 외가 식구들과 5일 간 지낸 뒤 외조 부모를 모시고 가족행사에 참여했다(한국여성재단, 2014 ; Hong, Ra, Kim, Jeun, Lee, 2015).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결혼 이민 여성	국내 거주 지역	어머니 고향	입국 년도	외가 방문 년도	어머니 직업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아버지 직업	자녀1 (연령**/ 성별)	자녀2 (연령/ 성별)	자녀3 (연령/ 성별)
김민아	서울 (도시)	남부 지방	2002	2013	조리사 /주부***	44세	53세	운수업	박영지 (9세/여)	박은지 (9세/여)	박지희 (4세/여)
레티앙*	서울 (도시)	북부 지방	2005	2014	다문화 이해 강사	33세	49세	건설업	김윤주 (7세/여)	-	-
이진아	경기 (도농)	북부 지방	2007	2014	제조업	33세	44세	제조업	서은혜 (7세/여)	서승혜 (5세/여)	-
임보영	강원 (농촌)	북부 지방	2006	2013	복지관 서비스업	32세	44세	축산업	김태우 (7세/남)	김혜지 (5세/여)	-
홍지영	대전 (도시)	북부 지방	2006	2013	다문화 이해 강사	33세	48세	육가공업	신진호 (7세/남)	신민호 (5세/남)	-
리안 디엵	대전 (도시)	북부 지방	2007	2014	통번역사	30세	50세	공공행정	김민규 (19세/남)	김현규 (6세/남)	김진규 (6세/남)
이지연	충북 (농촌)	북부 지방	2006	2013	농업	31세	46세	농업	김현주 (8세/여)	김현아 (6세/여)	김현미 (4세/여)
누엔티민 투이	전남 (농촌)	북부 지방	2007	2013	식당 종업원	35세	48세	건설업	박세연 (9세/여)	박지연 (6세/여)	박승민 (3세/남)
김영지	부산 (도시)	북부 지방	2008	2014	제조업 /주부	36세	51세	운수업	박준수 (6세/남)	박수미 (4세/여)	-
티프영	부산 (도시)	북부 지방	2006	2014	제조업	33세	50세	제조업	이혜주 (7세/여)	이경주 (4세/여)	-

*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이름을 가명으로 표기함. 베트남 이름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이름도 가명임

** 자녀의 연령은 만 연령임(2015년 기준).

*** 연구시작 시 조리사로 일했으나 연구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는 경우를 의미함

3. 연구절차

연구자들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어머니들과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진행한 심층면담은 10명의 어머니와 4회씩 총 40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했고 회당 면담시간은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된(semi-structured)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선 부모의 자녀교육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관점과 생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교육의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된 기본 질문들 위주로 진행하되, 면담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질문을 했고, 어머니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해서도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선행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발생한 궁금한 점들을 후속 면담질문에 반영했다.

참여관찰은 자녀들과 가족을 각 가정 당 2회씩 총 20회 진행했고 회당 관찰시간은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관찰은 주로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의 종일반에서 귀가한 시간, 맞벌이 가정은 어머니의 퇴근 시간과 맞추어야 했으므로 자녀들의 방학이나 주말에 진행했다. 때로 주말에 자녀들과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원 나들이를 가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허락을 받고 방해되지 않도록 관찰을 했다.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심층면담에서 분석한 결과로부터 좀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후속 면담질문에 반영했고, 참여관찰 시에도 이전의 면담내용과 관찰내용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관찰·분석했다.

Ⅲ. 연구결과

1.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에 대한 생각

첫째,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를 재능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했고 자녀들의 개별적인 재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는 한편 다방면에 뛰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엄마들은 자녀가 재능을 발휘해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지닌 각각의 다양한 재주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미술 학원 안 보냈는데 대표로 나가서 영동에서 그림 대회에서 그렸어요. 상 못 받았지만. 혼자 대표로 나갔어요. 800명 정도 모였어요. 영동군 아이들 모여서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었어요. 공원에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저가 따라갔었어요. 닭 그렸어요.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긴

물고기, 대추나무, 토끼도 그리고 집 옆에는 호수도 있어요. 호수에 물고기 살고 있는 것도 그랬어요. 가을이니까 이런 색깔로 그리고 여기는 나뭇잎이 쪼만한테 애벌레는 이렇게 크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지연: 현주·현아·현미엄마 면담, 2014. 11. 3)

둘째, 엄마들은 자녀를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자녀의 장래희망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나 욕심보다는 자녀의 흥미, 의지를 더 존중했고, 방과후 활동을 결정할 때도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왔다.

진호가 수업 좋아하지 않으면 “엄마, 나 힘들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지난 번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바둑이랑 주산이랑 했는데 요즘 10월 달에 두 번 빠졌어요. 안 배우고 싶나 봐요. 물어봤더니 “힘들어,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다 방법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법 아니까 하기 싫은가 봐요. 수업 안 들어가고 두 번 빠졌어요. 돈 내고 하는 건데 아쉽죠.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선 하기 싫으면 그만 해요.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돌봄 교실에서 놀기만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 대답하는데, “네 엄마” 소리가 엄청 컸어요. [말을 마치며 웃는다.]

(홍지영: 진호·민호엄마 면담, 2014. 11. 3)

진호는 이전에도 방과후 수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 진호엄마는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자녀가 수업을 좋아하는지, 잘 참여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에 진호가 방과후 수업에 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야단치기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먼저 들어보고 진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엄마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면 형제들과 함께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자기 일을 해가며 자랐다고 회상했다. 세연엄마도 자신이 자라온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세연이에게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시킨다고 했다.

세연이는 3학년인데 동생 돌봐요. 애기 밥 주고, 우유도 먹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 못해요. 토요일에는 오전에 학교 다녀와서 오후에 아기 돌봐요. 제가 토요일에 못 쉬니까 오전에 9시 반에 일

나갔다가 들어가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안 계시면 세연이가 얘기 잘 들봐요. 저는 한국 아이들처럼 키울 생각 안 해요. 베트남 아이들처럼 키울 생각해요. 베트남 애들은 다 밥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갔다 오면 다 해요. 애기도 보고, 밥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세연이 시켜요.
(누엔티민투이: 세연·지연·승민엄마 면담, 2014. 10. 23)

베트남 출신 엄마들은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과잉보호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과도하게 도와주는 것을 비판했다. 엄마들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 도움 없이 지낸 일을 이야기하며 자녀들도 씻기, 옷 갈아입기, 밥 먹기 등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하고, 초등학생 자녀는 동생 돌보기, 집안일 돕기까지 할 수 있다고 여겼다.

2.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에 대한 기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가 자신감 있는 사람, 정체성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존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엄마들은 자녀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엄마들은 자녀가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했다. 현주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싸워서 다쳤으나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기관을 옮긴 이야기를 해주며 자녀들의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장님이 한국사람, 외국사람 다 똑같이 잘해줘야지. 미리 전화해서 아이들 놀다가 싸워서 다쳤어요.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그거 얘기 안 해줬어요.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 또 무시해요. 나는 우리 애들 두 명 다 다른 곳으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자신있어하고 씩씩하고 무섭지 않아. 유치원이 더 좋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대. “엄마, 선생님 만나지 말아요. 선생님이 더 화내요”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원장님 만나서 “공부 아무리 잘 시켜도 우리 애들 자신감 떨어지는 건 싫어요. 무시하는 것 싫어요.”하고 얘기했어요.

(이지연: 현주·현아·현미엄마 면담, 2015. 6. 26)

현주엄마는 다문화가정 자녀라 차별받았다고 확신했고 그동안 자녀들이 어린이집

에 자신감 없이 썩썩하지 못하게 다녔음을 알았다고 했다. 결국 현주엄마는 자녀들의 자신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다른 자녀까지 모두 기관을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 엄마들은 자녀가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도록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가족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Hong, Ra, Kim, Jeun, Lee, 2014). 엄마들은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외가친척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고 이해하는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기대했다(한국여성재단, 2014).

엄마들은 자녀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다양한 문화를 잘 수용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엄마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서 정착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들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영향과 베트남 사람들은 이치(理致)보다 정(情)을 중시하며 강한 공동체성을 가진다는(류정현, 2009)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했다. 자녀들이 자신과 다른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랐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즐긴다면 어디에나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았기에 자녀가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해 배려하고 미래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엄마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돈이 많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없더라도 좀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여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없을 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중략) 다른 사람의 삶과 행동, 등에 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본인의 능력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본인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안디엵: 잔규엄마 면담, 2014. 10. 10)

진규엄마는 진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진규엄마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이야기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나눌 수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관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 알아보았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관은 베트남에서의 어머니들의 경험,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를 자녀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재능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고, 자율적인 선택이나 각자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자녀의 유능함을 믿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신감 있고 정체성을 지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이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다문화가정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의식한 기대이며, 베트남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타국의 문화를 접하고 직장생활도 경험하며 베트남 여성들이 체득한 다문화 수용성과 타인과의 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에 대한 관점은 아동의 재능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중시하며 독립적인 아동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아동중심사상과 상통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타인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 어머니들은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 친사회성, 다문화수용성, 개방성, 배려심, 그리고 이타심을 갖추기를 원했는데, 이는

자녀들의 인성을 중시하고 정서적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10가정이 모두 자발적으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참여할 만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외가방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큰 성과와 변화를 경험한(Hong, Ra, Kim, Jeun, Lee, 2014) 가정들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베트남 결혼이민가정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면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어머니들의 자녀관은 전반적으로 인성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학습 성취 중심의 성공 지향적 자녀관이 확산된 현실과 비교할 때 건전하고 바람직한 자녀관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바람직한 자녀관이 잘 유지되고 부모역할 수행에 반영되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상호문화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소수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 문화적 불평등, 민족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궁극적으로 결혼이민가정 자녀를 포함한 모든 다문화 아동들이 상호 존중하여 ‘더불어 더 잘 살게’ 만드는 상호문화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장한업, 2014).

참고문헌

- 류정현(2009). 베트남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선, 박경란(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2, 79-101.
- 백혜리(2005). 아동관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조. 교수논총, 17, 232-250.
- 이경화, 임희정(2012).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아버지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에 관한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69-98.
-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영애(1973).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관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미, 이명조(2000). 한국 및 일본 유치원 학부모의 자녀양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137-159.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경기: 교육과학사.
- 전경숙, 송민경(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 18(11), 305-330.
- 정갑성, 최정순(2010).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모성 정체감과 자녀애착에 관한 연구. *교육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7(1), 47-60.
- 팜티웬짱, 김영순, 박봉수(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교육문화 연구*, 20(4), 137-164.
- 한국여성재단(2014).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프로그램 효과 및 성과 연구: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 Maxwell, J.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Hong, Y. H., Ra, Y. E., Kim, H. J., Jeun, W. Y., & Lee, Y. R. (2014, 8). The Effects of the Educational Program Supporting Visitation to Mother' s Parents' Home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 Centered on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y.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meeting of PECERA, Bali, Indonesia.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Scholar Session (II)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현장중심 대학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아동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고지민(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수경(제주한라대학교 금호유치원 원감)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self leadership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의 업무환경에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정성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정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강경석, 황구현, 2009).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성과나 보상에 대한 대우의 공정한 정도를 말한다.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교사에게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정주, 박형신, 2012). 조직 구성원이 과업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조직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태도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셀프리더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박용진, 2009).

셀프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이다(정준호, 송영수, 2012). 셀프리더십은 전형적인 수직관계 리더십 관점에서 벗어난 팔로우십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D'Intino, Goldsby, Houghton, & Neck, 2007).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을 갖고 있다(Manz & Sims, 2001). 이와 같은 셀프리더십의 실천 전략들은 학습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다(이기호, 2007에서

* jinwhayu@pcu.ac.kr

재인용).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 각각의 변인들이 나타내는 긍정적, 부정적 결합은 유치원이라는 조직 측면과 교사 개인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치원은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 내에서 구성원인 교사가 사회정의에 기반한 개념인 공정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공정성 연구 소수를 제외하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는 어떠한가?
 - 1-1.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 1-2.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 수준별 집단에 따라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교사 설문 참여를 위한 동의를 구하였다. 약 27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36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거나 미응답된 자료 14부를 제외한 222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조직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진열(2014)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공정성의 3가지 하위영역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8 \sim .93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Manz(1983)의 측정 문항을 기초로 김한성(2002)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박민아(2009)의 문항을 다시 임원신, 이진화(2013)가 수정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셀프리더십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1$ 이었고, 6가지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2 \sim .902$ 사이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연구도구의 신뢰성, 객관성, 문항 내용의 적합성 및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4월 중순부터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학 교원 3인과 본조사 대상이 아닌 현직 유치원 교사 20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6월 2주부터 약 5주간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에 동의한 교사가 소속된 유치원으로 설문지를 전달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222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집단 간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 관계

유치원 교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의 상관성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조직공정성 전체와 셀프리더십 전체는 유의도 수준 .01에서 .526으로 비교적 높은 긍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하위 영역을 보면, 절차공정성은 .248~.476($p < .01$)으로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역과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상호작용공정성은 .234~.454($p < .01$)로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역과 긍정적 상관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분배공정성은 .162($p < .05$)~.401($p < .01$)로 나타나 각 하위 영역 간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구분	절차공정	상호작용공정	분배공정	조직공정성
자기기대	.265**	.279**	.310**	.318**
리허설	.470**	.446**	.326**	.466**
목표설정	.476**	.446**	.401**	.496**
자기보상	.371**	.389**	.329**	.408**
자기비판	.248**	.234**	.162*	.242**
건설적사고	.436**	.454**	.398**	.482**
셀프리더십	.495**	.490**	.418**	.526**

**p<.01

다음으로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셀프리더십(전체)에 대한 조직공정성의 세 하위 영역의 설명력은 약 27%($\Delta R^2=.263$, $F=40.511$)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절차공정성이 약 24.5%($\Delta R^2=.242$, $F=71.391$, $p<.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모형 2에서는 분배공정성의 설명력이 약 2.5%추가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조직공정성 세 하위 영역의 설명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자기기대는 분배공정성이 약 9.6%($\Delta R^2=.092$, $F=23.364$, $p<.001$)의 낮은 설명력을 보였고, 리허설은 절차공정성이 약 22.1%($\Delta R^2=.218$, $F=62.444$,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목표설정은 1모형에서는 절차공정성이 약 22.7%($\Delta R^2=.223$, $F=64.486$, $p<.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2모형에서는 분배공정성의 설명력 약 2.2%가 추가되어 24.9%($\Delta R^2=.243$, $F=36.382$, $p<.001$)를 나타내었다. 자기보상은 상호작용공정성이 약 15.1%($\Delta R^2=.148$, $F=39.241$, $p<.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자기비판은 절차공정성이 약 6.1%($\Delta R^2=.057$, $F=14.384$, $p<.001$)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서 셀프리더십 하위 영역에서 조직공정성이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건설적 사고는 1모형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약 20.6%($\Delta R^2=.203$, $F=57.135$, $p<.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2모형에서 분배공정성의 설명력은 약 1.8%가 추가되어 약 22.4%($\Delta R^2=.217$, $F=31.630$, $p<.001$)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의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의 세 하위 영역은 리허설,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에 대한 설명력은 약 2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기대, 자기비판은 10%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2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모형	독립변수 조직공정성	B(β)	t	R ² (ΔR ²)	R2변화량	F
셀프 리더십	1	절차	.334(.495)	8.449***	.245(.242)	-	71.391***
	2	절차	.257(.380)	5.336***	.270(.263)	.025	40.511***
		분배	.144(.195)	2.742**			
자기 기대	1	분배	.297(.310)	4.834***	.096(.092)	-	23.364***
리허설	1	절차	.405(.470)	7.902***	.221(.218)	-	62.444***
목표 설정	1	절차	.403(.476)	8.030***	.227(.223)	-	64.486***
	2	절차	.310(.367)	5.077***	.249(.243)	.022	36.382***
		분배	.171(.186)	2.575*			
자기 보상	1	상호작용	.353(.389)	6.264***	.151(.148)	-	39.241***
자기 비판	1	절차	.265(.248)	3.793***	.061(.057)	-	14.384***
건설적사 고	1	상호작용	.389(.454)	7.559***	.206(.203)	-	57.135***
	2	상호작용	.290(.339)	4.307***	.224(.217)	.018	31.630***
		분배	.163(.177)	2.251*			

*p<.05, **p<.01, ***p<.001

2. 유치원 교사의 조직공정성 수준별 집단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조직공정성 평균점수 분포에서 하위 30%(약, 29.6%)와 상위 30%(약, 29%) 구간을 추출하여 상위와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전체)에서 평균점수가 약 0.90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하위 영역에서는 목표설정과 건설적사고가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약 0.91(목표설정 차이 1.0779, 자기보상 차이 0.8745, 자기비판 차이 0.6477, 건설적사고 차이 1.041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이 공정하다고 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집단에 비해 셀프리더십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3 조직공정성 수준별 집단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구분	조직공정성		t
	상집단(N=63) 평균(SD)	하집단(N=66) 평균(SD)	
자기기대	4.8360(.7940)	4.0404(.9914)	5.042***
리허설	5.1481(.6442)	4.1364(1.1334)	6.267***
목표설정	5.0476(.1756)	3.9697(.9727)	7.192***
자기보상	5.1270(.7294)	4.2525(1.0814)	5.406***
자기비판	4.3598(1.0613)	3.7121(1.1411)	3.334**
건설적사고	4.7989(.7562)	3.7576(.9329)	6.946***
셀프리더십(전체)	4.8862(.5541)	3.9781(.8290)	7.345***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 교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과 셀프리더십은 .526($p<.01$)에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가 비교적 높은 긍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직공정성은 셀프리더십(전체)을 약 27%정도 설명하였으며, 각 하위 영역에서도 자기기대와 자기비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20%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조직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구성원인 교사의 자기주도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련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원, 2008; Whisenant & Smucker, 2009).

둘째, 유치원 교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 수준별 집단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직공정성 상위 집단이 셀프리더십 하위영역과 전체에서 모두 하위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조직공정성이 상위 집단일수록 교사들의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셀프리더십에서는 목표설정에서 평균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직공정성의 수준별

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켜 줌으로써 유치원의 조직공정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첫째 유치원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 둘째, 민주적 절차를 반영한 의사결정체계 운영의 강화,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공감 증진을 위한 유치원의 다양한 방안 개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 강경석, 황구현(2009). 교사의 학교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지원인식,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및 학교조직 효과성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141-168.
- 김정주, 박형신(2012). 보육시설의 조직공정성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조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2(1), 59-78.
- 김진열(2014). 조직공정성과 조직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20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진(2009). 학교장의 슈퍼리더십과 교사의 셀프리더십, 교사의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조직건강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호(2007). 교사가 지각하는 멘토링과 셀프리더십, 변혁적 지도성 및 학교조직효과성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출판사.
- 이진원(2008). 조직공정성의 학교조직에의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교육종합연구, 6(1), 81-102.
- 이진원, 조주영, 박세훈(2009). 교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교육종합연구, 7(1), 73-95
- 임원신, 이진화(2013). 어린이집교사의 셀프리더십,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1), 285-304.
- 정준호, 송영수(2012). 국내 대기업의 셀프리더십 필요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수준 인식 차이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과학연구, 6(2), 79-98.
- D'Intino, R. S., Goldsby, M. G., Houghton, J. D., & Neck, C. P. (2007). Self-leadership: A process for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14(4), 105-120.
-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San Francisco, CA.
- Whisenant, W. & Smucker, M.(2009).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in coach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157-167.

현장중심 대학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미술수업을 중심으로

고지민(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수경(제주한라대학교 금호유치원 원감)

I. 서론

최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이경희, 강경리, 2015). 즉,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며, 이는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창의적 인성교육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인성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시한 이후에 유아교육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김형재, 김경미, 가중순, 2010; 이경민, 최윤정, 박순정, 2013).

창의적 인성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창의적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하며(조은명, 2010), 창의적 인성이 높은 교사는 탐구, 발견, 확산적 사고와 발문, 동기유발, 긍정적 보상 등 다양한 교수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고, 창의성 구성요소인 민감성, 융통성, 정교성, 재구성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수연, 2006). 그리고 창의적 인성이 잘 갖춰진 유아교사들은 언제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향이 있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방법을 수용하며 매사에 열정적이고 몰입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이 보이며(김형재 외, 2010),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다소 위험부담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원, 2000; 하주현, 2000).

* mins0306@chu.ac.kr

김희정, 서현아(2016)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창의적 인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인 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이 교수효능감과 결합되어질 때 교사가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높여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교수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유아교사가 지닌 창의적 인성은 실제적으로 교수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아교사가 창의적 인성을 가지고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유아들의 창의성도 함께 발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김연희, 2011; 박상희, 김경희, 이효숙, 2005).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인성에 내외 통제성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성은현, 조정자, 2005),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병만, 김정주, 윤정진, 2016), 예비유아교사의 교사역량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놀이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박지영, 조은미, 2016),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한 연구(이경민 외 2013), Bernstein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조형숙, 백승선, 안연경, 2014) 등이 있다. 이처럼 창의적 인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창의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창의성 교육을 바라보던 기존 미술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을 인성교육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김형숙, 2012; 손지현, 2009). 3-5세 누리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술경험영역에서 일상생활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성역량 함양도 함께 지향할 수 있다. 특히 손원경, 조혜진, 김옥주, 이현숙(2010)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전개하면서 활동계획과 다른 유아들의 흥미와 돌발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유아들이 사물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방식과 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유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하면서 일상 속 미적 요소를 지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되며, 미술은 그리기, 만들기 그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아동미술수업에서 유아를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인 해결을 위해 좀 더 몰입하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경험이 창의적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현장중심 미술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의 3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아동미술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예비유아교사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기관으로 1학년 현장연계를 통해 예비유아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예비유아교사교육의 장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2. 현장중심 미술수업의 진행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중심 미술수업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8주간의 이론수업과 워크숍 활동, 7주간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참관 및 수업관찰, 모의수업, 유아적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현장과 대학에서 교사 및 예비교사를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지난 2~3년간의 아동미술 과목을 운영해 온 교수 2인이 공동으로 과정을 진행하였다. 8주간의 이론수업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현장중심 아동미술교육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주1회 이루어졌고, 미술수업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아동미술교육의 내용은 미술의 이해, 창의성과 미술, 미술관 견학 및 감상, 학습자로서의 아동, 미술환경 분석 및 평가, 미술내용 및 효과

적 지도, 유아의 미술발달(평면, 색표현, 입체표현 등/과학과 미술활동, 수학과 미술 활동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워크숍 활동인 경우 초상화 그리기, 점묘법, 자유화, 공동작품, 물감 탐색 및 표현하기, 찰흙으로 표현하기, 빛으로 표현하기로 진행을 하였다. 또한 강의계획안을 기초로 강의 진행순서와 내용에 따라 미술 작품 소개하기 1회, 조별 워크숍 발표 8회, 미술전시관 관람 보고서 1회, 모의수업 계획안 및 평가 2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7주간의 현장수업은 4명의 예비유아교사가 한 조를 이루어 정해진 기관에 매주 1회씩 만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수업 참관 및 관찰, 모의수업, 유아적용수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미술 교수활동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포토폴리오 작성, 창의적 인성 검사를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 창의적 인성검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주현(2000)의 창의적 인성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창의적 인성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모두 8개의 하위요인(인내·집착, 유머감, 자기확신, 상상, 호기심, 독립성, 개방성, 모험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이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수는 총 42문항이었다.

2) 저널쓰기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중심 미술교육에서 경험한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매주가 끝나고 난 후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생각 등을 자유롭게 기록하는 저널쓰기를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로 양적 효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저널쓰기를 통한 질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창의적 인성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

현장중심 미술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창의적 인성 중 인내/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호기심, 상상, 개방성, 모험심, 독립심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창의적 인성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하위요인	사전		사후		t
	M	SD	M	SD	
인내/집착	13.78	3.38	14.56	3.22	-2.83**
자기확신	17.45	3.18	18.18	2.93	-2.79**
유머감	11.23	3.10	12.00	2.71	-3.62**
호기심	13.23	2.49	13.71	2.17	-1.54
상상	14.65	2.51	14.95	2.68	-1.15
개방성	14.88	2.07	14.74	1.99	.52
모험심	5.85	1.98	5.74	1.77	.55
독립심	6.89	1.38	7.18	1.43	-2.02*
전체	97.97	12.29	101.17	11.56	-4.22***

p<.01, *p<.001

그리고 창의적 인성의 요소 중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유머감, 인내/집착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와 같이 유머감은 문항 6과 문항 27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표 3>과 같이 인내/집착은 문항 25와 문항 42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창의적 인성 중 유머감 요인 사전·사후 검사 차이

문항	내용	구분	M	S	t
6	나는 엉뚱한 말로 주위사람들 웃기곤 한다.	사전	2.97	.86	-3.20**
		사후	3.30	.84	
13	나중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되라는 소리를 들곤 한다.	사전	2.11	.99	-1.06
		사후	2.20	1.01	
27	나는 유머각각이 꽤 있다.	사전	2.97	.99	-2.44*
		사후	3.15	.84	
41	친구들이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재미있어 한다.	사전	3.18	.88	-.162
		사후	3.35	.77	

*p<.05, **p<.01

표 3 창의적 인성 중 인내/집착 요인 사전·사후 검사 차이

문항	내용	구분	M	S	t
7	나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알 때까지 파고든다.	사전	2.89	.90	-1.12
		사후	3.02	.83	
25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더 좋아한다.	사전	2.27	.97	-2.24*
		사후	2.53	1.01	
26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 만다.	사전	3.06	.86	-1.69
		사후	3.21	.87	
33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 풀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사전	2.80	.93	-.68
		사후	2.86	.83	
42	나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좋아한다.	사전	2.33	.77	-3.71***
		사후	2.67	.87	

*p<.05, ***p<.001

2. 저널쓰기 분석 결과

예비교사의 저널쓰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장중심형 미술교육을 통해서 예비교사는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미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그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고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 미술과 관련된 요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유아들의 장난감에서도 미적요소를 찾아볼 수 있고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장난감의 알록달록한 색을 보고 색감을 느끼고 자연물을 통해 미술표현이 가능하다”.

둘째, 현장중심형 미술교육을 통해서 예비교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처럼 내가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고 ‘나는 잘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깐 미술에 흥미도 생기고 미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생각이 되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유아들에게 직접 모의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모의수업이나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연습할 때도 잘못하고 조 아이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는데 유아들과 함께 수업해보니까 떨렸던 마음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진정되고 오히려 더 편해졌다.”

셋째, 현장중심형 미술교육을 통해서 예비교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활동을 해야 유아의 흥미를 잘 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발문을 할 수 있을까?” 등 이런 질문을 수업을 계획할 때부터 끝이 날 때까지 계속되었었다. 교사가 되어서도 유아들의 예상 밖의 대답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원들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려 하고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기도 하고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중심 미술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사후

창의적 인성검사 분석 결과, 창의적 인성 중 인내/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저널쓰기 분석 결과, 현장중심형 미술교육을 통해서 예비교사는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육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병만, 김정주, 윤정진(2016).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403-424.
- 김연희(2011). 예비유아교사 신입생들의 아동관 및 교직원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교육*, 30(3), 69-78.
- 김형숙(2012).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32, 1-29.
- 김형재, 김경미, 가중순(2010).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 사고유형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 *사고개발*, 6(1), 125-154.
- 김희정, 서현아(2016).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창의적 인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6(1), 253-272.
- 박상희, 김경희, 이효숙(2005). 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165-185.
- 박지영, 조은미(2016). 예비유아교사의 교사역량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놀이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2), 137-148.
- 성은현, 조정자(2005). 예비유아교사의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3), 31-52.
- 손원경, 조혜진, 김옥주, 이현숙(2010). 현장중심 미술수업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지식 변화 탐색. *유아교육연구*, 30(4), 319-339.
- 손지현(2009). 창의·인성교육과 시각문화 미술교육: 통합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4(3), 195-216.
- 이경민, 최윤정, 박순정(2013).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어린이미디어연구*, 12(2), 73-96.
- 이경희, 강경리(2015). 예비중등교사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사고개발*, 11(3), 107-141.
- 이수연(2006). 예비유아교사의 사고양식, 의사결정, 창의성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경원(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서울: 학문사.

조은명(2010). 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 및 유아 창의성 증진을 위한 역할수행과 놀이교수효능감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형숙, 백승선, 안연경(2014). Bernstein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3(1), 247-276.

하주현(2000).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인성 발달경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cholar Session (Ⅲ)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이승숙(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나리(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유용식(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Requests for Children's Play

이승숙(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나리(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놀이는 유아의 삶 그 자체이며, 학습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유아기에 있어서 놀이는 유아의 삶이자 생활 자체로 놀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을 구성해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전효훈, 엄정애, 2011). 또한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인지·사회·정서·신체·언어발달 등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놀이의 교육적·발달적 가치를 고려해볼 때 유아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유아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매체로 놀이를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엄정애, 2004, 이숙재, 2014).

최근 놀이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학문 전달에 중점을 둔 교사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유아의 생활 그 자체로서의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전효훈, 엄정애, 2011).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 속에서 유아들의 놀이는 교육적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곽정인, 강민정, 2009). 이러한 현상은 유아교육현장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특별활동 비율을 높이게 되었으며, 실제 김은영, 조혜주, 김경미(2009)의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75.8%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별활동의 과도한 실시가 유아교육현장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심인 자유선택활동의 확보를 어

* wulidul@hanmail.net

렵게 하고, 유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장미라, 홍용희, 2002; 전홍주, 2009; 엄정애, 2004).

Jones과 Walker(2011)는 놀이의 교육적 수단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놀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아 발달의 성취의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놀이를 유아 발달 과정에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경험이면서 동시에 유아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로 인식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가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현재 우리사회는 놀이가 교육적 수단으로 강조되어 유아의 삶에 진정한 놀이가 실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아의 놀이 환경을 위협하고 놀이 기회의 부족을 가져왔다(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 2015). 따라서 놀이는 유아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놀이가 유아의 기본 권리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놀이가 유아의 기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양옥승, 지성애, 김영옥, 홍혜경, 2002), 놀이에 대한 유아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서지연, 엄정애, 2004),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박희숙, 2003; 서현선, 박혜준, 2014)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주는 놀이 공간, 놀잇감, 또래, 교사 등과 같이 유아 놀이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서 유아의 놀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유아 교사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놀이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 놀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놀이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5명과 어린이집 교사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유아교육기관 유형 및 담당학급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고, 담당학급의 연령도 만 2~5세가 모두 포함되도록 표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교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별 면담을 하였다. 개별 면담은 교사 1인당 1~2씩 이루어졌고, 각 면담은 40~6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에서는 유아에게 놀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아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유아들이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고 놀이 환경은 어떠한지,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유아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다.

면담한 모든 내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면담에 대한 전사와 분석을 한 후 구체적인 사례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e-mail을 사용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전사 자료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고, 주요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아 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요구’의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의 하위 내용은 대부분의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에 연구진

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연구진에 의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Graue & Walsh, 1988; Maxwell, 2008).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내부자 검증을 받아 자료 분석에 대한 명확성과 타당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 전에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유아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생소했던 교사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였다. 또한 유아기에 놀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놀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들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유아도 수업시간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놀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충분한 놀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습지와 기관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학습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이외에 진행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가 학습으로 대체되거나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지원 요구

교사들이 놀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실제 교실에서 유아들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한글이나 수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부모의 요구와 그러한 요구에 맞춰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의 교육철학이나 운영방식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외에도 교사가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성향, 또는 유아들에게 좋은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이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장, 부모, 교사 모두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외에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놀잇감, 실외 놀이터 등의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이 개선되기를 원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을 유아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였다. 또한 유아기에 놀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박희숙, 2003; 문채련, 2001; 박은아, 2003; 엄정애, 2004; Cheng, 2001; Rothlein & Brett, 1987)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사들이 놀이에 대한 교육적·발달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교사들이 실제 놀이지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교사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 놀이 또는 학습으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놀이가 곧 교육일 수 없다는 입장과 유아의 놀이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유아의 놀이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교사들이 극단적으로 두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배영희(2005)의 연구와 교사들이 놀이와 학습을 양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고한 Rothlein과 Brett(198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놀이와 학습을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본다면, 놀이를 단순히 학습과 무조건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이기숙, 1991). 유아의 놀이가 교육적 효과로만 강조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내용이나 유아의 수준, 학습 여건 등에 따라 놀이와 교육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교육과정 구성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배영희, 2005).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요구를 살펴보면 놀이에 대한 원장의 인식 재고, 교사교육을 통한 교사의 놀이 신념 재정립, 부모교육을 통해 학습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인식 변화되기를 원하였다. 특히 부모의 요구나 원장의 유아교육기관 운영 방식,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노력에 따라 유아의 놀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의 연구에서 타 기관과의 경쟁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로 인하여 학습지나 특별활동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놀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장,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악한 놀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옥승 외(2002)의 연구에서도 놀이를 위한 놀잇감이 부족한 실태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김은희, 유준호(2012)의 연구에서도 실외놀이 영역의 교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놀이를 위한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놀이 환경의 개선은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장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유아 놀이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개선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누리과정에서 놀이 시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주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유아의 놀이를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서류작업과 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정인, 강민정(2009). 유아교육에서 놀이와 학습과의 역동성.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43-164.
- 김은영, 조혜주, 김경미(2009).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실태 보고(연구보고서 2009-0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희, 유준호(201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6(4), 27-52.
- 문채련(2001). 유치원 예비교사와 경력 교사의 놀이 개념에 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2003). 유아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2003). 유치원 교사 및 부모의 유아놀이 인식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5, 221-240.
- 배영희(2005). 유아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16, 99-109.
- 서지연, 엄정애(2004). 놀이에 대한 유아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21(2), 45-66.
- 서현선, 박혜준(2014). 자유선택활동시간의 놀이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영상자료를 활용한 심층면담. *육아지원연구*, 9(2), 147-176.
- 양옥승, 지성애, 김영옥, 홍혜경(2002). 유아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태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28, 289-318.
- 엄정애(2004).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연구*, 24(1), 145-164.
- 이숙재(2014). 영유아 놀이의 이론과 실제(4판). 서울: 창지사.
- 이기숙(1991). 유아교육과 놀이. *한국어린이육영회(편)*, 유아교육세미나 자료: 유아교육과 놀이. 서울: 한국어린이육영회, 5-15.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초기 · 특기 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전홍주(2009).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본 유아 영어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29(3), 191-213.
- 전효훈, 엄정애(2011).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활용에 관한 경력 교사의 경험과 어려움의 해결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5(5), 305-334.
-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2015). 권리소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 Cheng, D. P.(2001). Difficulties fo Hong Kong teacher's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play in the curriculu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 857-869,
- Graue, M. E., & Walsh, D. J.(1998). *Stud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Thousand Oaks, CA: SAGE.
- Jones, P., & Walker, G.(2011). *Child's rights in practice*. Londeon: sage.
- Rothlein, M., & Brett, A.(1987). Children's teacher and parent's perception of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45-53.

Maxwell, J. A.(2008). Designing a qualitative study. In L. Bickman, & D. J. Rog(Eds.),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2nd ed., pp. 214-253). Thousand Oaks, CA:Sage.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공간인지 과제수행, 모의 양육행동 간 관계

연구윤리-인문사회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유용식(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1883년 마리 프랑소와 마탱이 파리에 최초로 동물생체실험 반대단체를 설립하면서 연구윤리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인간의 편익을 위한 동물의 생체실험 실행 여부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핵심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연구윤리가 주목 받게 된 것은 1946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재판의 일환으로 열렸던 “의사들의 재판” 때문이었다. 인간생체 실험에 참여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재판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1949)의 10가지 기본원칙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되었던 것이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의 개념이었다, 즉, 인간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뉘른베르크 강령은 1964년 세계의사협회의 헬싱키선언****과 더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윤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연구윤리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이슈가 된 것은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초의 일이며,***** 그 배경에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연구 논문 조작사건을 계기로 연구

* ysyoun@wsu.ac.kr

** 류동춘 외(2014.3), 분야별 연구윤리 매뉴얼 발간(인문사회분야), 한국연구재단. p 7

*** 위의 책, p 7

****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으로서, 2008년 6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윤리 지침 마련이나 검증 기구 운영이 시도되었으며, OECD에서도 논의되었다.

윤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당시에는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여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범 정부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에 착수하였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팀을 주축으로 T/F팀이 구성되고, 각계분야 전문가회의, 관계 부처회의,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특히 즐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였던 포항공대 브릭(생물학 연구정보센터) 등 인터넷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이 지침은 연구윤리의 판단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 실제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의 개념과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연구부정 행위의 종류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연구윤리 관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과학기술부(20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p. 16- 18.

** 과학기술부 훈령(2007.2.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36호.

*** 교육부 보도자료(2015.11.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II.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의 개념

1. 연구윤리란?

연구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 및 생명윤리 등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외에도 연구비의 적정 사용,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의 개념에는 연구의 진실성, 저자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위조, 변조, 표절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은 연구 참여자 간의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로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장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공로 인정 보장문제와 관련이 있다.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은 연구실 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내부 고발이나 자유로운 소통, 이용 자원의 공평한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다.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은 인체 대상 실험이나 동물실험 등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 들이 포함한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연구자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였는지 와 관련된 문제로서 연구비의 공정한 집행, 국가 이익이나 공익성에 반하는 연구 종사 및 수행 문제,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이나 조언을 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 과학기술부(20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 26.

** 위의 책, pp. 29-30.

2.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연구에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설계, 수행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의도적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투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2015년 11월 개정되었던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으로 통칭)은 총 5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제2장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에는 연구자와 대학,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자체규정 마련,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판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서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검증 주체 및 검증원칙과 절차,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판정 및 조치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에서는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재조사, 조사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 조사기록의 공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 목적, 적용대상 및 방법

1) 목적

지침의 목적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 위의 책, p. 31

** 이하의 내용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5.11.03.”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정함”에 있다.(지침 제1조 목적)

2) 적용대상 및 방법

지침의 적용대상은 “대학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 교육부소관 기초 연구사업, 특정 연구개발사업, 기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 등으로 규정하여(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방법) 사실상 국내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이 지침의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의 적용 범위도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연구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4조 적용범위)

2.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서는 자율적인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격적, 학문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연구윤리 현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지침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 마련, 연구윤리 관련 기구 수립,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실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6조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또한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지침 제9조 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3. 연구부정 행위

1)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

지침의 연구부정 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및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체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지침 제12조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2) 연구부정 행위의 판단

이외에 연구부정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서 학문분야에서의 윤리적 또는 법적 비난 행위 여부, 연구부정 행위 당시의 지침 및 보편적인 기준 준수 여부,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 학계 관행과 특수성, 행위 결과 획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지침 제13조 연구부정 행위의 판단)

4.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1)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지침 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의 명예와 권리 침해 금지, 조사과정의 비밀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지침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2)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책임 주체, 검증원칙 및 절차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고,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대학 등은 연구부정 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16조 연구부정 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은 조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입증해야 하며, 독립성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지침 제17조 연구부정 행위 검증원칙)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학 등의 장은 이와 관련한 협조와 결과통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지침 제18조 연구부정 행위 검증절차)

3) 조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판정 및 조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침 제21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정당한 위원 기피에 대해서 수용하여야 한다. (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출입제한,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해당기관 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지침 제23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정,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학 등의 내부규정과 관련 법령, 사회 일반 인식에 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침 제2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4.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1)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침 제28조 재조사)

2) 조사결과의 제출 및 후속조치

대학 등의 장은 조사과정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예비조사, 본조사에 관한 시행 과정과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학 등의 장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 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교육부장관은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침 제

30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IV.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지금까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중심으로 연구 윤리에 대한 전체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침 제12조의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은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로서 명시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대해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의 1)

인문사회분야 연구에서 위조는 실제로 통계 조사 혹은 심층 면접, 실험, 관찰 등을 수행하지 않은 채 수행한 것처럼 데이터나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논거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행위, 문헌 연구의 경우 원하는 결론을 위하여 없는 전거를 만들어 내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의 2)

인문사회분야 연구에서 변조는 통계조사 혹은 심층면접, 실험 등의 수행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행위, 문헌 연구의 경우

* 류동춘 외(2014.3), 분야별 연구윤리 매뉴얼 발간(인문사회분야), 한국연구재단. p 38

원하는 결론을 위하여 전거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는 행위, 연구 과정에서 원하는 결론과 위배되는 자료를 고의로 제외시키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3. 표절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의 3)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표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표절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서 각 대학교나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어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이나 학회의 표절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표절이란 연구자가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연구가 발표되었다면 나중에 발표된 연구는 표절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혹은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의 4)

교육부의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

* 위의 책, p 40.

** 위의 책, p 48

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저자 표시의 실제적인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은 실제로 공짜저자, 유령저자, 교환저자, 도용저자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짜저자는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유령 저자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며, 교환 저자는 학문이 세분화 되면서 같은 관심 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영역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방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이며, 도용 저자는 논문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의 5)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순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대중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중복 게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복게재 자체가 연구부정 행위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소중한 연구 성과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정당한 중복게재, 부적절한 중복게재,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장려해야 할 중복게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위의 책, p 61.

** 위의 책, p 53-57.참조

V. 논의 및 결론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은 물론이고,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 비용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학부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학습윤리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학부교육에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의 습관적인 “퍼 나르기”현상을 감안할 때 오히려 초·중·고 학생 때부터 정규 교과목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연구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지만, 연구 그 자체에 대한 정직성, 순수성 및 객관성, 개방성, 준법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 지적 재산권 존중 등의 원칙 준수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2007.2.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제236호.
- 과학기술부(20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 교육부(2015.11.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교육부 보도자료(2015.11.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류동춘 외(2014.3), 분야별 연구윤리 매뉴얼 발간(인문사회분야), 한국연구재단.

포스터 발표

1.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이해정(아이미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유치원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소영(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수경(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3. 만 5세 햇살반 유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유지와 변화
정효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개선요구-전라북도 지역 중심으로
김세진(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5. 영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노명숙(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송화진(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 이야기
조자연(인천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7.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소리(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8.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성혜(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한미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9. 만 5세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에 관한 질적연구: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김도리(고감도어린이집 교사)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0.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및 공감간의 관계
김희정(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백영애(전남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임유경(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문화 차이분석

김운삼(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구서연(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교수)

12.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 인식

김은주(매곡어린이집 원장)

진명희(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서연실(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14.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박경화(군산중앙유치원 교사)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Father'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s

이해경(아이미소어린이집 원장)**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핵가족화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로서 공동 육아의 책임과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사회에 비해 다양해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부각되면서 자녀의 양육참여가 강조되고 있다(이은아, 2012).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끌어 나갈 때 부부간의 친밀감과 신뢰도가 증가하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아윤이, 2012; 송진숙, 송진영, 2009; 유호용, 2001; 이정순, 2002), 양육 효능감을 증가시켜 어머니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아기에 아버지가 사회적 지혜를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조그만 역경이나 곤란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굴복해버리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문용린, 2008).

유아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회적 유능감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사회·정서적 관계는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건강한 자아와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015학년도 후기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loveteddy70@hanmail.net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정서반응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은 어떠한가?
2. 아버지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립 유치원 1개, 국공립 어린이집 2개, 민간어린이집 6개, 병설유치원 1개와 충북 J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1개에 재원중인 만 3세~만 5세 유아 300명과 그들의 아버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그들의 담임교사 21명이 연구에 참석하여 평정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첫째,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arni(1986b)가 제작한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을 안라리(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혜원(2005)의 사회적 유능감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으로 통계 수치를 산출하였고,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서반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은 행복 2.86(SD=.49), 호기심 2.78(SD=.45), 노여움 2.15(SD=.50), 걱정 1.96(SD=.60), 슬픔 1.90 (SD=.62), 두려움 1.53(SD=.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버지의 정서반응성 각 요인별 기술통계량

	<i>N</i>	<i>Min</i>	<i>Max</i>	<i>Mean</i>	<i>SD</i>
노여움	242	1.25	4.00	2.15	.50
슬픔	242	1.00	4.00	1.90	.62
두려움	242	1.00	3.25	1.53	.44
걱정	242	1.00	3.67	1.96	.60
호기심	242	1.67	4.00	2.78	.45
행복	242	1.00	4.00	2.86	.49
아버지정서반응성	242	1.58	3.05	2.18	.26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 정서반응성은 39세 이하가 ($M=2.19$, $SD=.26$), 40세 이상($M=2.16$, $SD=.25$)보다 약간 높았고,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M=2.19$, $SD=.2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원졸($M=2.18$, $SD=.30$), 전문대졸($M=2.17$, $SD=.26$), 고졸($M=2.15$, $SD=.22$)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판매직($M=2.20$, $SD=.19$), 사무직($M=2.18$, $SD=.25$), 전문직($M=2.15$, $SD=.26$), 숙련직($M=2.1$, $SD=.23$)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월 소득에 따른 아버지 정서반응성은 400~500만원 미만($M=2.25$, $SD=.26$)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M=2.16$, $SD=.26$)과 300만원 미만($M=2.16$, $SD=.25$), 300만원~400만원 미만($M=2.15$, $SD=.25$)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은 남($M=2.17$, $SD=.26$), 여($M=2.18$, $SD=.26$)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은 만4세($M=2.18$, $SD=.22$), 만5세($M=2.18$, $SD=.28$)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만3세($M=2.15$, $SD=.24$)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호기심에서 만4세($M=2.92$, $SD=.44$)가 가장 높고 만3세($M=2.68$, $SD=.48$)가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45$, $p<.01$).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표 2>에서 보듯이, 사회적 규범 3.80($SD=.64$), 또래관계 기술 3.59($SD=.66$), 정서조절 3.48($SD=.72$), 정서성 3.38($SD=.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30세 이하($M=3.47$, $SD=.51$), 40세 이상($M=3.63$, $SD=.5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2$, $p<.05$). 즉, 40세 이상 아버지들의 자녀가 정서조절, 또래관계 기술, 사회적 규범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각 요인별 기술통계량

	<i>N</i>	<i>Min</i>	<i>Max</i>	<i>Mean</i>	<i>SD</i>
정서조절	242	1.09	5.00	3.48	.72
정서성	242	2.10	4.60	3.38	.53
또래관계기술	242	1.00	4.92	3.59	.66
사회적규범	242	1.63	5.00	3.80	.64
유아의 사회적유능감	242	1.51	4.80	3.55	.53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대학교졸(M=3.62, SD=.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M=3.47, SD=.4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기타의 직업(자동차 정비 기술자, 운전직, 스포츠 종사자, 농업)이 가장 높았고((M=3.62, SD=.61), 숙련직(M=3.42, SD=.65)이 가장 낮았고, 아버지의 월 소득이 높고 낮음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M=3.65, SD=.50)가 남아(M=3.44, SD=.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021$, $p<.01$). 유아 연령에 따라서는 만 5세(M=3.62, SD=.5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3세(M=3.36, SD=.58)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39$, $p<.01$).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만 5세의 유아가 만 3, 4세 유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해보면,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월 소득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성의 정도는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에 따라서 39세 미만의 아버지 자녀보다 40세 이상의 아버지 자녀들이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고 경험이 많으므로 자녀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반응성에서 만 4세 유아의 아버지들이 호기심에 관한 정서 반응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그 이유를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만 4세 시기에는 주변의 인물과 사물에 강한 호기심이 나타나며 “왜”라는 질문의 시기로 유아 자신의 신체와 성에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므로 아버지들의 정서반응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은 남아든 여아든 관계없이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서 남녀평등의 의식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정서 반응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다양한 변인과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유능감 발달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치원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ctivities with parent participation
in Kindergarten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안소영(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수경(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I. 서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 13조 및 미국의 200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모참여가 명시되면서,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참여 실태 및 현황, 부모참여 방안, 부모참여 연구동향 및 비교, 부모 참여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인식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기관 운영 차원에서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부모참여 중 부모참여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관의 전체적인 운영 차원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하는 다양한 부모참여 행사 속에 포함되는 예시의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참여수업은 기관에서 유아의 보호자가 하루 몇 시간동안 초대되어 교실에서 자녀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유아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참여수업을 주요 초점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에서 실시된 부모참여수업을 대상으로 유아, 부모,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최윤정(water@gwnu.ac.kr), 안소영(ansy7@induk.ac.kr), 최수경(csk@ssc.ac.kr)

교사가 부모참여수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갖는 기대, 의미, 개선점을 밝힘으로써 부모참여수업의 본질은 무엇이고, 적절한 부모참여수업 실시 방안은 무엇인지 찾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 유아, 부모, 교사가 부모참여수업에 대하여 갖는 기대, 의미, 개선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 부모, 교사의 부모참여수업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셋별유치원(가명)만 3~5세 유아 189명과 원장 및 원감, 교사 9인, 학부모 189인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11월에 진행된 ‘부모참여수업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부모참여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참여수업이 교사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안겨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2016년 6월~7월까지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3인은 매일 1시간 30분씩 진행되는 9개 반의 모든 부모참여수업에 비참여관찰을 하고, 유아, 부모, 교사들의 활동 장면이나 행동을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부모참여수업이 끝난 후에 원장, 교사, 부모들과 자연스러운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유아에 대한 자료 수집은 부모참여수업 사전과 사후에 교사가 교실에서 대소집단으로 모여 이야기나누기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방적 질문을 중심으로 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질문지 답변에 대한 연령별 교사 1인의 심층 면담을 가졌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 3인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유아, 부모, 교직원)이 어떻게 부모참여수업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고, 의미 있는 사례를 나열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범주화하고 주제어를 찾아 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총 3회에 걸쳐 수정되어, 유아 이해하기, 관계 맺기, 성장과 다짐의 3개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Ⅲ. 연구결과

첫째,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유치원 생활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유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들은 이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유아 모습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가 다른 공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크다. 이에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장점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도 인지하게 된다. 또한 부모참여수업은 부모에게 유아가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교사들은 부모 참여를 가정연계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유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유아의 유치원 생활을 아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반면, 교사는 지금까지 유아들과 함께 진행해 온 유치원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부모에게 전달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유아, 부모, 교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끼고,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갔다. 부모참여수업은 부모가 한층 성장한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유아 역시 자신의 생활공간에 부모를 초대한다는 설렘과 기대를 갖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부모와 교사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체험하면서 서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상호 신뢰감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사와 부모는 공통의 관심사인 유아 성장 및 교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부모참여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아와 교사 간에도 긴밀한 협력과 지원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셋별 유치원 교사들이 부모참여수업을 교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보다는 유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유아와 교사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교사와 부모는 성장을 다짐하였다. 유아는 자신들이 함께 준비한 부모참여수업이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

참여수업은 유아 뿐 아니라, 부모참여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평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교사들에게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자신의 교육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교사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유치원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자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부모 역시 평소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노력을 반성하면서 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향후 부모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수업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미시체계 및 중간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모는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교육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유아와 더욱 애정적인 관계가 되며, 유아와 교사는 교육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원하는 관계가 된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생활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간에는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배워가면서 동반자적인 성장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동반자적 성장 관계는 더욱 성공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부모참여수업은 유아, 부모, 교사에게 역할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모참여수업에 참여한 유아, 부모,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데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살피고 바라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찰(이재용, 2016)의 시간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모참여수업이 참여자들의 역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참여수업이 이루어진 1시간 30분 동안 모두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 부모, 교사는 각자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부모참여수업에 참석한 그 시간, 그 공간에서는 오로지 그 관계 속에서의 역할, 즉 학생과 자녀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짧

은 시간의 참여수업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보다 깊이 있게 살피고 바라보면서 성장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부모 부모참여수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수업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참여수업이 유아를 둘러싼 중간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기관장과 타 부모들에 대한 관계맺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참여수업의 계획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유아, 부모, 교사가 모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각 구성원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이 부모참여수업이라는 일회적인 행사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 5세 햇살반 유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유지와 변화

Continuance and changes of children's friendships at Hatsal class

정효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관계 안에서 갖는 경험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유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친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관계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 5세 햇살반 유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 또는 변화되는 친구관계 안에서 갖는 경험적 특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방법론적 배경: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햇살반 유아들이 친구관계가 유지되거나 변동을 겪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현상이나 정황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왜 그러한지를 규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례연구(Yin, 2014/2016)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급의 하루 일과 속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역동성을 지닌 유아들의 친

* priscilla82hj@hanmail.net

구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햇살반 만 5세 유아 27명과 담임교사 2명이며, 이 중 세 개 그룹의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7명의 유아가 주 참여자이다. 주 참여자는 포레지명법, 담임교사의 추천, 예비관찰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3. 연구절차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연구동의를 구한 후 2016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친구관계 설정을 위한 유아 및 담임교사와의 개별면담과 예비관찰을 진행하였다. 본 관찰은 2016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14주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일주일에 2회 기관에 방문하였으며, 등원부터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및 놀이평가가 이루어지는 약 2시간 동안 참여관찰 하였다. 본 관찰 시의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관찰, 면담, 문서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자료 분석 과정은 Hatch(2015)가 제안한 귀납적 분석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고 사례연구 보고서의 초안을 주요 정보 제공자인 담임교사에게 검토 받는 방법(Yin, 2014/2016)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그룹의 친구관계 유지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지: 정서적 조력관계’, ‘확장: 발전적 단짝관계’, ‘변화·해체: 역동적 삼각관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다시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첫째, 유지: 정서적 조력관계는 서로를 의지하는 애착관계로 일상에 적응하고 놀이 상대가 늘어남에 따라 각자 독립하여 관계가 단절된 듯 보였지만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다시 서로에게 회귀하여 안정과 지지를 구하였다. 둘째, 확장: 발전적 단짝관계는 밀착된 이원적 관계로 초반에는 놀이 비참여와 다른 또래와의 관계 단절을 보였다. 이들은 놀이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다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일시적 관계 단절을 경험하였으나 변화를 수용함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였다. 셋째, 변화·해체: 역동적 삼각관계는 한 명의 유아를 중심에 둔 삼각관계로 복합적인 심리적 현상과 역동적인 관계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 갈등과 따돌림, 비효율적 모방을 보이던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셋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중심에 있는 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유아는 맹목적인 선호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함이 지속되자 서로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새로운 친구관계를 시도하며 일부 관계의 해체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는 친구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 신뢰와 애착, 관계의 공평함과 만족감과 같은 정서적 특징들이 친구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친구관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놀이나 행동과 같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특성 외에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들은 관계의 지위에 따른 불평등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의 단절과 해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단 형성된 친구관계라 하여도 유아들은 그 안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유아기 친구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을 토대로 분석하기보다 충분한 기간과 맥락을 반영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개선요구 -전라북도 지역 중심으로

Mothers' Perceptions and Improvement Needs of After-School Courses
in Public Kindergartens - Centered on Jeollabuk-do-

김세진(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I. 서 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어머니의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요구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1-1. 방과 후 과정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

* seunghosj@hanmail.net

**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형태, 기관유형, 자녀연령, 자녀성별

1-2. 방과 후 과정 교육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1-3. 방과 후 과정 운영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2.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개선요구는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시의 공립유치원에 다니면서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 3세~만5세 유아의 어머니 307명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오유숙(2014), 이현선(2008)의 질문지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수정, 고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시안을 작성한 후 유아교육전공교수 2인과 현장경력 5년 이상의 교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확정 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배경,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개선요구 총 3개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2015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아닌, P공립유치원의 만3세~5세 유아의 어머니 각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유선과 방문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한 후 담임교사가 유아 편에 가정으로 배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자가 일주일 후에 다시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5점 척도의 경우 1~5점 배점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증(chi-Square Tests) 또는 t검증이나 F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결론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개선요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필요성, 방학동안 운영의 필요성, 특성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수준은 매우 높으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아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와 어머니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육계획안의 내용은 방과 후 과정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인식하였다. 방과 후 과정에서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바람직한 하루일과의 구성은 별도의 방과 후 과정 교육 활동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활동으로는 다양한 줄넘기, 달리기 등 신체활동과 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 다수였다. 또한, 탐구심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활동이 가장 강조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방과 후 과정 방학 기간 중 교육활동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활동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특성화 활동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무용, 체육, 수영 등 신체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성화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병설의 경우 단설보다 어머니의 인식이 높았다.

방과 후 과정의 운영방식에서 어머니들은 대부분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급편성은 각 연령별로 따로 학급편성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고 인식하였다. 한편, 낮잠 및 휴식시간은 유아의 요구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정통신문, 쪽지 등이 부모와의 연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운영방식으로는 유아에게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급 처치법 인식과 안전을 위한 지도방법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실내는 방과 후 과정 전용교실, 실외는 대근육 운동영역의 시설·설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배치방법으로는 방과 후 과정 교사가 담당하되 특성화 교육은 특성화 강사가 담당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의 자질은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38세 이하의 어머니 인식수준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둘째,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교사 1인당 유아수가 많음과 교재·교구가 다양하지 않음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교사 1인당 유아의 수 조절을 개선이필요한 점으로 요구하였으며 38세 이상의 어머니의 요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단설의 경우 병설보다 어머니의 요구 수준이 더 높았다.

영유아교육기관 교사 자질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 연구

노명숙(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송화진(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월령이 빨라지고 있으면서*** 영유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오랜 시간 동안 자녀 양육을 영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하면서 기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상대적으로 커졌고, 이에 부응하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자녀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맡기면서 좋은 교사를 만났으면 하는 부모의 기대가 큰 만큼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사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도 한다.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구분한 연구가 많았고, 이를 통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기관은 구분되어 있으나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대상이 같으므로 기관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교사와 예비교사 대상이 많았으므로, 자녀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학부모의 인식을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와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방향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sookr50@hanmail.net

** dskid5898@hanmail.net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이 평균 24.1개월이며, 주로 12~23개월이 35.4%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미만도 11.9%였다. 2009년과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최초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 교육기관 선생님 자질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인식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 교육기관 선생님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2016년 8월에 배부 및 회수된 설문지는 교사용 215부 학부모용 240부로 총 455부였으나 교사용 202부, 학부모용 231부로 총 433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선행연구(문월순, 2015)에서 사용된 항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영유아교사 자질 척도의 Cronbach's α 는 전체점수가 .88로 높게 나왔다. 하위 척도는 인성에서 .855, 전문적 지식에서 .932, 교수기술에서 .929, 교직태도에서 .826으로 높게 나왔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SPSS Win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항목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고자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영유아 교육기관 선생님 자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의 인식

영유아 교육기관 선생님 자질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인식은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연령, 경력 등)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은 대부분의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지식과 기술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Scheffe를 이용한 사후검정에서는 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에 따른 교사 자질 검증 결과 인성에서 유아 교육학 전공자와 기타 아동학 및 사회복지학 전공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학 및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유아교육학 전공자 보다 점수가 교사의 자질 중 인성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대부분의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비교분석

교사와 학부모의 인성, 지식, 기술, 태도의 차이점 검증 결과 인성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사가 학부모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은 대부분의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교사의 전문적지식과 교수기술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공에 따른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은 아동복지학 및 사회복지

지학 전공자가 유아교육학 전공자 보다 인성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유아를 자주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교사’ 등의 인성 척도에서 아동복지학 및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유아교육학 전공자에 비해 높은 필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복지’적 접근으로 영유아를 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인성적 요소가 좋은 교사의 자질에서 중요한 만큼 유아교육학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보다 강조하는 내용이 보완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대부분의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교직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남아일 때 보다 여아일 때 교사의 교직태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아가 여자 아이인 경우에 교사가 ‘영유아의 능력을 인정하고 독립된 개인으로 대하는 교사’ 등의 교직태도를 기관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의 인성, 지식, 기술, 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 인성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사가 학부모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학부모보다 교사들이 영유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인성 측면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있어서 ‘따뜻함, 성실, 친절함, 헌신’ 등의 인성적 요소에 대해 학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다 더 크게 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 이야기*

The Study on Experience about Classroom Management of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조자연(인천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실행하는 학급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급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특성은 무엇인가?
2.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립유치원 교사 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6년 1월 11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사 1명당 3회의 일대일 면담을 하여 총 24회의 면담, 8회의 E-mail, 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면담 내용의 녹음 및 전사 작업, 관련문헌 분석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삼각검증법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kdis@ginue.ac.kr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분류하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1단계 연구 주제 형성하기, 2단계 유목화 과정, 3단계 최종 주제 생성하기로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특성

유치원 학급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나간다. 이처럼 학급은 유아들의 배움이 스스로 일어나는 곳으로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박병량, 2006). 학급 내에서 교사의 학급경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각 학급마다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은 끊임없는 상호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난 반면 획일화된 경직성의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주체적인 자율성의 모습과 관료주의적 타율성이라는 상반된 모습도 나타났다.

2.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립유치원 교사는 발령을 받아 병설유치원 또는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일 수 있지만, 유치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체계는 초등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러한 한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인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은 개인의 교직 경력, 개인적 특성, 구성원간의 관계로 나타났고, 물리적 특성은 공립유치원이 갖는 기관의 특수성으로 나타났다.

3.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어려움

공립유치원에서 학급을 경영한다는 것은 심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병설유치원의 체제상 소인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연령을 대표하여 학급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은 교사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어려움은 혼자서 살아남기, 초등학교 겸임관리자의

이해부족이라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과다한 행정업무, 유치원 내 소수 인원의 교사들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의 특성은 끊임없는 상호역동성과 획일화된 경직성, 주체적인 자율성과 관료주의적 타율성으로 나타났다. 학급은 교육과정, 유아, 교사, 학부모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획일화된 경직성으로 인해 학급을 경영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학급을 경영할 때 교사 및 유아가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주체적인 자율성의 모습이 나타난 반면, 학교라는 큰 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교사가 학급을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모습으로 경영하는 특성도 나타났다.

둘째,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교직 경력, 개인적 특성, 구성원간의 관계, 기관의 특수성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험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에 따른 관심사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가 가진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이 학급을 경영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유치원 내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간의 관계도 학급을 경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체계적 특성에서 오는 기관의 특수성도 학급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립유치원 교사의 학급경영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과 초등학교 겸임관리자의 이해부족, 과다한 행정업무, 유치원 내 소수 인원의 교사로 나타났다. 학급을 경영하는데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 교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나타났고, 유치원 교사를 지원해주어야 할 관리자도 초등 겸임관리자이기 때문에 기인하는 어려움도 상당부분 있었다. 또한 과다한 행정업무를 하기에는 유치원 내 소속된 소수의 교사로 인해 막중한 책임감과 과중함이 교사가 학급경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Kindergarten Teachers' Happiness on Ego-resilience and Teacher Efficacy

김소리(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교사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셋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한 공·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서는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2002)가 개발한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kdis@ginue.ac.kr

‘Resilience Scale’ 영어판(Atsushi et al., 2003)을 민동일(2007)이 번안하고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과학 교수 효능감 척도(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 STEBI)를 김미경(2007)과 서주희(2013)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교사효능감의 수준은 모두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율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가장 높고, 감정조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하위요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일반적 교수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행복감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은 56.3%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미래지향성,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효능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행복감의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교수효능감보다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Science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Constructivism on Early Childhood Scientific Process Skills and
Scientific Attitudes

윤성혜(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한미라(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 론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과학교육 동향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될 뿐 아니라, 과학적 소양을 갖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문미옥, 신현옥, 김영숙, 류철선, 2007).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자연탐구영역에서는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아의 관심을 확장시켜주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기에는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를 기르는 것은 유아과학교육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한편,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구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정해진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김희정, 김세루, 윤수인, 2011).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과학 활동은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기초로 유아가 직접 사물과 현상을 관찰, 비교, 예측,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성주의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문제해결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 태도, 인지적 자아, 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

* ysh1004282@hanmail.net

향(박영란, 1999; 이정민, 2000; 김은희, 2005; 서윤희, 2009; 이영만, 홍경란, 원혜경, 2010; 김희정, 김세루, 윤수인, 2011),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과학교수 방법과 실제(곽향림, 2002; 조부경, 현윤희, 2014)가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구성주의이론에 기초한 과학 활동을 지속 적용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학 과학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앞으로 전국 공통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자연탐구영역을 현장에 적용할 때 과학교육 내용과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한 H유치원과 B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6명(남아 12명, 여아 14명)이며, 비교집단은 B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25명(남아 12명, 여아 13명)이다. 과학적 탐구능력 검사 도구는 Martin(1997)의 탐구능력 평가 척도를 이정민(2000)이 제작한 과학적 탐구능력 검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는 유경숙(1999)의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한 이정민(2000)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실험처치 기간은 2016년 3월 4주부터 7월 2주까지 총 16주간 소요되었다. 다음 표 1에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표 1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주제

기간	내용 범주	과학교육 프로그램 주제	활동 유형
3. 22~4. 7	물리과학	경사로	자유선택활동(과학영역 자료제시)
4. 5~5. 3	생명과학	꽃과 나무	실외활동
5. 3~5. 12	환경과학	흙과 돌	실외활동
5. 17~5. 26	물리과학	빛과 그림자	자유선택 및 실외활동
5. 30~6. 30	생명과학	달팽이	자유선택활동(과학영역 제시)
6. 7~6. 23	환경과학	공기와 바람	실외 및 소집단 활동
6. 28~7. 7	물리과학	물	자유선택 및 소집단 활동

Ⅲ. 연구 결과

1.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2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구 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오차
실험집단	26	2.90	.57	4.05	.55	3.92	.06
비교집단	25	2.46	.52	3.19	.38	3.34	.06
t		2.840**		-		-	

**p<.01

표 2에서 사전점수를 2.69점으로 통제된 후의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3.92점으로 비교집단의 3.34보다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645$, $p<.001$). 따라서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이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과학교육활동보다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3 유아의 과학적 태도

구 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26	3.03	.69	4.21	.55
비교집단	25	2.94	.62	3.61	.55
t		0.488		3.863***	

***p<.001

표 3과 같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4.21점으로 비교집단의 3.61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863$, $p<.001$). 따라서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이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과학교육활동보다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과학교육활동을 한 비교집단 간의 과학적 탐구능력은 과학적 탐구능력의 구성요소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누리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과학교육활동을 한 비교집단 간의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인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동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 검사 도구에 대한 더욱 발전된 도구가 필요할 것이며 도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 5세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Peer Interaction by 5-year-olds : Centered on
Indoor Free-Choice Activity

김도리(고감도어린이집 교사)*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유아들은 점점 더 이른 시기부터 가정이 아닌 유아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최세진, 2003). 유아가 기관에서 또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또래상호작용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은 그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놀이 시간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므로(량화, 전일우, 2010),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에 관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의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고찰했다.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면 유아의 또래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다움 유치원 새싹반 유아들의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나는 또래상호작용의 양상과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내자유선택활동 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은 어떠한가?
2. 실내자유선택활동 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cutedolly511@hotmail.com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주시에 소재한 병설유치원 만 5세 학급인 새싹반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유아 24명과 교사 1명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6년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6주 동안 총 20회에 걸쳐 유아들의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에 총 20회의 참여 관찰, 오디오 녹음, 교사와의 형식적 면담 및 비형식적 면담, 문서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관찰시에 현장에서 작성한 현장약기와 녹음 내용으로 면담 전사본을 만들었고,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III. 연구결과

1. 실내자유선택활동 시 또래상호작용의 양상

1)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양상

새싹반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으로 대화 나누기, 함께 놀이하기, 규칙 알려주기, 도와주기, 제안 요청하기, 협상하기, 공감하기가 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협동해서 정리하기, 양보하기, 격려하기, 위로하기, 친구 반갑게 맞이하기, 인정해주기, 함께 노래하기 등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2)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양상

새싹반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으로 강요하기, 거친말투 사용하기, 공격적 행동하기, 무시하기, 거절하기, 욕심부리기, 규칙 어기기가 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비난하기 또는 이르기, 명령조로 말하기, 놀이 방해하기 등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나타났다.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과 기질이 있

었다. 개인의 성에 따른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아는 행동으로 여아는 언어로 부정적이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기질에 따라 유아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요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는 친구, 학급 내 규칙, 대중매체가 있었다. 유아들은 친구들을 통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해야하는 지 배운다.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다른 친구를 돕고, 친구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냈다. 유아들은 학급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또래와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에는 영역 내 인원 수 맞추기, 정해진 도구의 양 사용하기, 책임기가 있었다. 유아들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또래에게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나타냈으며, 또래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거친 말투로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의 양상을 나타냈다. 대중매체는 또래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많은 시간 미디어에 노출되어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나온 행동을 따라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속어의 사용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들의 또래상호작용의 긍정적·부정적 양상을 살펴보고,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 시키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유아들은 또래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또래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실내자유선택활동시간을 살펴봄으로써 언어·행동이 바탕이 되는 유아들의 또래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및 공감 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and empath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김희정(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백영애(전남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임유경(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가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많은 연구를 통해 교사는 교육의 질적 요소 중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사는 유아와 일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podek, Saracho, & Davis, 1991). 그러므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 확보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여러 변인 중 직무만족도를 탐색하는 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교사의 교육적 기술보다 신념체계, 자아개념, 직업의식 등과 같은 질적인 변인이 교육실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또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수활동과 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Kontos & Stremmel, 1988)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인 중 특히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수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조직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유아의 신념, 발달, 그리고 성취정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

* bbpig94@hanmail.com

력을 미친다고 믿는 교사의 신념으로(Ashton, 1985; Gorrell & Hwang, 1995),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유아들의 학습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유아교사는 유아, 동료교사, 원장,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빈번한 갈등상황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직무에 대한 불만족의 수준을 높게 만든다. 이러한 관계적인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활용되는 메카니즘 중의 하나가 공감이다(이선미, 2014). 유아교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배울미, 조유진, 2014). 공감적인 사람은 타인을 효과적으로 격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발달을 조력할 수 있기(Batson, 1987) 때문이다.

교사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부각되는 공감능력과 유아교육의 중요한 질적 요소인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과 공감에 대한 관련성을 살핀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한 연구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교사효능감 및 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그 설명력을 통해 교사의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아교사의 효능감을 증진시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공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공감이 갖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28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총 23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한 총 226부(80.71%)를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교사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Enochs와 Riggs(1990)에 의해 개발된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분려(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12문항, 개인적 교사효능감 13문항으로 총 2개 영역의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2) 공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공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번안한 박성희(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공감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를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포함한다. 4개의 하위영역에서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3)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Jorde-Bloom(1989)이 개발한 유치원 직무만족도 측정도구 ECJSS(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중에서 직무만족도 구성요인만을 송유진(1993)이 번역한 도구를 토대로 이경애(2010)와 김시연(201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무자체특성 10문항, 사회적 인정 3문항,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 5문항, 근무환경 10문항, 보수와 승진 5문항으로 총 5개 영역의 36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3. 자료분석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공감의 인식 정도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공감의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전체 교사효능감은 3.52(SD=.38)로 5점 척도에서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교사효능감(M=3.54, SD=.38)이 개인적 교사효능감(M=3.50, SD=.38)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전체 공감 또한 3.49(SD=.33)로 5점 척도에서 보통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의 하위영역에서는 공감적 관심(M=3.64, SD=.38)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상하기(M=3.31, SD=.62)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3.19(SD=.41)로 5점 척도에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M=3.46, SD=.47)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M=2.67, SD=.78)는 가장 낮게 나타나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1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공감,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226)

변 인		M	SD	변 인		M	SD
교사 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3.54	.38	교사 효능감	직무자체특성	3.22	.47
	개인적 교사효능감	3.50	.49		사회적 인정	3.27	.63
	전체	3.52	.36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	3.46	.47
	관점취하기	3.56	.45		근무환경	3.32	.58
공감	상상하기	3.31	.52		보수와 승진	2.67	.68
	공감적 관심	3.64	.48		전체	3.19	.41
	개인적 고통	3.44	.46				
	전체	3.49	.33				

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공감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자체 특성은 일반적 교사효능감($r=.393, p<.001$), 개인적 교사효능감($r=.423, p<.001$)과 사회적 인정은 일반적 교사효능감($r=.309, p<.01$), 개인적 교사효능감($r=.333, p<.001$)과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는 일반적 교사효능감($r=.338, p<.001$), 개인적 교사효능감($r=.495,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그리고 근무환경에서도 일반적 교사효능감($r=.263, p<.05$), 개인적 교사효능감($r=.246, p<.05$)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공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인정은 관점취하기($r=.289, p<.05$), 공감적 관심($r=.316,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관점취하기($r=.356, p<.001$), 상상하기($r=.378, p<.001$), 공감적 관심($r=.451, p<.001$)과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환경에서는 상상하기($r=.265, p<.05$)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수와 승진에서는 관점취하기($r=.249, p<.05$), 공감적 관심($r=.293, p<.05$)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효능감, 공감 간의 상관관계

(N=226)

변 인		직무자체 특성	사회적 인정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	근무환경	보수와 승진
교사 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393***	.309**	.338***	.263*	.078
	개인적 교사효능감	.423***	.333***	.495***	.246*	.069
공감	관점취하기	.124	.289*	.356***	.152	.249*
	상상하기	.172	.195	.378***	.265*	.111
	공감적 관심	.198	.316**	.451***	.292	.293*
	개인적 고통	.115	.221	.124	.260	.229

* $p<.05$, ** $p<.01$, *** $p<.001$

3.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공감의 설명력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VIF 지수는 1.292-1.49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교사효능감, 일반적 교사효능감,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직무만족도를 1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7.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효능감의 설명력이 1.4%로 나타났다. 공감의 하위요인인 상상하기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2.1%, 공감적 관심이 1.1% 추가되어 이들 변인이 직무만족도를 1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교사효능감, 공감의 설명력

모형	B	β	t	R^2	ΔR^2	F	VIF
(상수)	66.145						
개인적 교사효능감	.823	.230	3.131**	.079	.079	18.401***	1.298
일반적 교사효능감	.416	.163	2.978**	.094	.014	11.006***	1.292
상상하기	.636	.042	2.598*	.115	.021	9.154***	1.248
공감적 관심	.858	.168	2.323*	.126	.011	7.593***	1.493

* $p < .05$, ** $p < .001$, *** $p < .001$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문화의 차이분석

김운삼(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구서연(국제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교수)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확대로 유아들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되었고, 교육기관 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내게 되면서 유아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문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문화는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사 900명을 임의표집 하여 이 중에서 미회수 및 불성실

* edupsy97@kdc.ac.kr

응답자의 도구를 제외한 73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으로는 학급규모, 연령, 학력, 교육경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직무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직무 만족도 척도는 Jorde -Bloom(1989)이 제작한 유치원 직무만족도 측정도구(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 : ECJSS)를 변안하고 수정하여 오영숙(2011)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전체적인 신뢰도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2) 조직문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원혜경(2013)이 사용한 협동적 조직문화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신뢰도 α 는 .95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배경(연령, 학력,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분석

유아교사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직무인식, 후생복지, 보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p < .05$,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p < .01$ 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분석에서 유아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의 직무인식, 후생복지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개인변인(교육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분석<표 IV-4>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직무인식,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후생복지, 보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1$).

2. 일반적 배경(학급규모, 연령, 경력)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분석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규모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분석에서 조직문화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학습동반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유아교사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 분석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에서는 목적일치성, 동료적 지원, 학습동반자에서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사협동, 전문성 개발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분석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에서는 교사협동은 $p < .01$, 목적일치성에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문성개발, 동료적 지원, 학습동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에서 학급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 조직문화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경력별 차이에서 볼 때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완성적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반성적이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경력이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조직문화에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오랜 기간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교사 업무를 인식하는 과정과 동료 및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The perception of mothers on early childhood math education and mathematical environment at home

김은주(매곡어린이집 원장)

진명희(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수학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유용한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에서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능력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홍혜경 2013). 수학은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학문으로 유아수학교육은 유용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으로 강조되고 있다(NCTM, 2000).

미국 유아교육협회(NAEYC, 2009)와 미국 수학교사협회(NCTM, 2002)는 '유아수학교육: 좋은 출발을 촉진하기'라는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유아기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수학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질적으로 우수한 수학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영아기 부터 기초적인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유아기는 급속한 수학적 지식의 획득이 이루어지므로 영아를 포함한 유아의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수학학습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다(Cross, Woods & Schingruber, 2009). 특히 유아기는 수학의 기초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유아기 때부터 수학이란 학문을 좀 더 흥미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익한 환경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수학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jmh159@hanmail.net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적합한 수학적 활동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가 구체물이나 놀잇감의 조작을 통한 자발적 탐색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수학적 상황의 기회 등을 포함하는 수학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홍혜경, 2013). 유아를 위한 다양한 수학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통한 비형식적 수학개념과 구체물이나 놀잇감 조작을 통한 수학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유아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특히 상징적인 사고가 힘든 유아기에 종이와 연필을 통한 수학보다 일상생활의 맥락 안에서 수학이 다루어진다면 유아는 수학을 재미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학교육을 위해 강조하는 것은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학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 놀이나 게임과 같이 유아가 자신의 능동적인 조작과 탐색 및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아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교사의 수학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부모 우리나라의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그러나 유아의 수학적 능력이 생애 초기에 형성된다는 선행연구(Cross, Woods & Schingruber, 2009) 결과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수학적 이해를 돕는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미(2008)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가정에서의 일상경험은 교육기관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친숙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한 수학교육은 유아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태도 등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며, 김혜숙(2002)은 자녀의 수학교육에서 어머니의 인식이 자녀의 수학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행연구(강영아, 2007; 서현아, 2003; 염지현, 2010; 정정인, 2004)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학원, 방문교사를 통한 학습지 위주의 수학교육을 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조작물이용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경험하는 초기의 수학교육은 그들이 성장한 후 학습하

는 수학에 대한 성취와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유아 수학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수학적 놀이나 수학 놀잇감 등 가정의 수학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의 수학 능력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역할과 인식경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가정의 수학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수학환경의 제공자로서 어머니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에게 적합한 가정의 수학적 환경과 유아 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가정의 수학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 수학교육과 가정의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G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내원 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총 600부 중 573부(95.5%)가 회수되었으나 그중 문항에 충분한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65부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강상, 2012; 박양덕, 2000; 장옥남, 2007; 허영미, 2012)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영역에는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유아수학

교육에 대한 인식 4문항, 가정의 수학적 환경 4문항, 가정에서의 수학교육 활동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설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 유아교사 5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도구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가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과 수학적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유아수학교육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가정에서 수학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공간과 도형, 규칙, 수와 연산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하고 있는 수학활동 내용은 자료수집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수학교육을 지도하는 방법은 부모가 직접 지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지를 많이 하였으며, 학원에서 지도는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이기숙 등(2004)의 연구에서 유아들이 대부분 하원 후 학원을 많이 가는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어머니가 가장 선호하는 수학 놀이자료는 구체적 실물자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조작교구, 수학동화책, 수 카드·게임자료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우정호, 2000, 장옥남, 2007, 정정인, 2004)에서 어머니들이 구체적 실물 자료가 가장 효과적인 교재 교구라고 인식하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수학적 경험을 위해 퍼즐이나, 도형과 같은 구체적 실물자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은 다른 선행연구(강영아, 2007; 서현아, 2003; 염지현, 2010; 정정인, 2004)에서 어머니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학원, 방문교사를 통한 학습지 위주의 수학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구체적인 조작물을 이용한 학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점과 대조된다.

유아수학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학력이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가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수학 활동을 잘 모른다는 선행연구들 (박양덕, 2000, 정정인, 2004, 허영미, 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들에게 수학교육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수학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Lying

서연실(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달과 급속한 경제성장, 생활양식의 기계화는 사회적 가치 기준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그 결과 도덕성 결여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덕성이 부재된 사회속에서 올바른 자아관과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도덕성 연구의 한 영역을 구성하는 도덕판단 연구에서 최근 관심을 끌어오는 분야는 아동의 '진실과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거짓말 행동을 수반하므로 아동의 도덕적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타인의 상태 및 마음에 대한 조망수용을 할수 있는 사회인지적 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 관련 연구 중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관련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과 검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거짓말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음이론, 자아존중감, 도덕적 판단력을 변인으로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직간접적인 경로와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거짓말 이해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 탐색을 통해 극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바람직한 도덕교육의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와 관련된 제반문제 상황에서 유아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moya0920@nate.com

연구문제 1. 유아의 마음이론, 자아존중감, 도덕적 판단력은 거짓말 이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마음이론, 자아존중감이 거짓말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덕적 판단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대상은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규모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15개 유아교육기관(유치원6곳과 어린이집 9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283명이다. 대상유아의 평균원령은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73.64개월이며 남아 129명, 여아 154명이다.

2. 연구도구

1) 거짓말 이해능력 검사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짓말 이해능력 검사는 Bussey(1999)의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각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한다.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은 Happe(1994)와 Bussey(1999)가 고안한 이야기를, 유희적 거짓말은 Happe(1994)와 Bussey(1999)가 고안한 이야기를 토대로 권은영(2011)이 한국 유아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이야기를 사용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8이다.

2) 마음이론 검사

유아의 마음이론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틀린 믿음 과제를 사용한다. Perner와 Wimmer(1983)의 위치이동과제와 Perner, Leekam과 Wimmer(1987)의 내용물 교체과제를 김유미(2015)가 수정한 이야기를 사용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0이다.

3) 자아존중감 검사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측정하기 위해 Fantazzo 등(1996)의 도구를 기초로 이현경

(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7이다.

4) 도덕적 판단력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해 Nucci와 Turiel(1978), Smetana(1981), Smetana와 Kim(1987), Fowler(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송미화(1997)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5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과 AMO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여 측정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를 검토한 후 수정지수를 근거로 수정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최종 모형에 기초하여 경로의 유의성, 직간접 경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후 Sobel 검증(1982)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최종모형의 적합도 검증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df)= 145.834(82), $P < .001$, GFI= .934, SRMR= .048, NFI= .902, TLI= .941, CFI= .954, RMSEA= .053으로 모든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켜 모형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종모형에 대한 해석

최종모형에서 제시된 각 경로를 살펴보면 마음이론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값은 .154(C.R.= 2.053, $p < .05$), 마음이론이 거짓말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값은 .148(C.R.=2.347, $p < .05$), 자아존중감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값은 $-.099$ (C.R.= -1.394 , $p < .05$), 자아존중감이 거짓말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값은 .025(C.R.=.472, $p < .05$), 도덕적 판단이 거짓말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값은 .522(C.R.= 4.686, $p < .001$)로 C.R.값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임이 검증되었다. 마음이론과 거짓말 이해사이에 매개변수인 도덕적 판단은 부분매개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거짓말 이해사이에 매개변수인 도덕적 판단은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3.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석

마음이론, 자아존중감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마음이론은 도덕적 판단에 $\beta = .15$ 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아존중감은 도덕적 판단에 $\beta = -.10$ 으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이론과 자아존중감, 도덕적 판단이 거짓말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마음이론은 거짓말 이해에 $\beta = .15$ 의 직접효과와 $\beta = .08$ 의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총 효과 $\beta = .23$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거짓말 이해에 $\beta = .02$ 의 직접효과와 $\beta = -.05$ 의 간접효과를 모두 가져 총 효과 $\beta = -.03$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판단은 거짓말 이해에 $\beta = .52$ 의 직접효과만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마음이론과 자아존중감은 거짓말 이해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이론과 자아존중감은 도덕적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대해

관련 변인들 전체가 31.6%의 설명력을 보여,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의 이해에 있어 마음이론, 자아존중감,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음이론은 유아의 거짓말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판단은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마음이론, 자아존중감이 거짓말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덕적 판단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마음이론과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판단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이론은 도덕적 판단력을 매개로 하여 거짓말 이해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거짓말 이해능력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판단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Mothers' Perception about Outdoor Play in the Kindergarten

박경화(군산중앙유치원 교사)**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바깥놀이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유치원 바깥놀이 운영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유치원 바깥놀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 어머니 총 252명이다. 기관유형 및 연령 당 균등비율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권연정(2011), 김희진(2012)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검

* 본 논문은 2016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요약본임

** kingeye2girl@hanmail.net

*** 기관유형(공립/사립) / 자녀의 성별 및 연령 /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

중, t검증, χ^2 검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치원 바깥놀이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치원 실외놀이 필요성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t=2.76$, $p<.01$)과 모 연령($F=4.82$, $p<.0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중 대근육 활동을 위한 고정놀이 시설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t=2.17$, $p<.05$)과 모 연령($F=5.22$, $p<.01$), 모 학력($F=3.53$, $p<.05$)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중, 대근육 활동을 위한 이동놀이 기구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t=2.33$, $p<.05$)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중, 감각놀이를 위한 구성 필요성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연령($F=3.80$, $p<.05$)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유치원 바깥놀이 운영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치원 바깥놀이의 주 횟수, 적합한 시간, 편성시간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주 횟수'의 경우에만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7.01$, $p<.001$). 유치원 바깥놀이의 바닥소재, 우려되는 점 및 실시방법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바닥소재'의 경우에만 자녀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8.86$, $p<.05$). 유치원 바깥놀이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할 바깥놀이 활동형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연관찰(34.7%)'로 인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활동(21.6%)', '시설물을 이용한 놀이(16.5%)', '산책(14.9%)', '모래놀이(12.3%)' 순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에서 바깥놀이 운영 시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F=4.61$, $p<.05$)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유치원 바깥놀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치원에서 바깥놀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변인별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t=3.18, p<.01$)과 모연령($F=3.91,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IV. 결론

1.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바깥놀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이유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로 인식하였다.

바깥놀이의 교육적 목적은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순으로 유아의 발달을 돕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실내놀이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바깥놀이 영역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감각놀이 영역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바깥놀이 시설 중 대근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는 운동장 또는 잔디밭과 복합놀이기구가 가장 필요하며 이동놀이 기구로는 공과 유아용 축구골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감각놀이를 위해서는 모래놀이가 가장 필요하며, 역할놀이를 위해서는 소꿉놀이집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유치원 바깥놀이 운영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의 시간이 1회를 기준으로 21~30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바깥놀이 횟수는 일주일에 3~4회, 바깥놀이 운영 시간 편성은 오후 12~2시를 가장 선호하였다. 바깥놀이 공간의 바닥소재에 대해서는 잔디밭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바깥놀이 실시 시 바깥놀이 시설의 안전문제를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인식하였다.

유치원에서의 날씨에 따른 바깥놀이 실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날씨의 경험과 관찰을 위해 가급적 실시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날씨가 좋은 날에만 한다는 인식도 유사하게 높아 어머니들이 날씨를 바깥놀이 실시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바깥놀이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은 ‘자연관찰’활동이며, ‘유아들의 안전 지도

하기'를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로 인식하였다.

3. 유치원 바깥놀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바깥놀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바깥놀이 프로그램개발, 교사의 운영의지와 노력, 시설 및 기구의 보완, 시설 및 공간 확충 등의 모든 개선방안에 대해 필요성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외에 유치원 바깥놀이의 개선을 위해 어머니들은 바깥놀이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육아지원연구’ 발간 및 심사 규정

발간규정

1. 육아지원연구의 발간은 매해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연간 4회 발행한다.
2.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1월 발간 학회지는 전년도 11월 15일, 4월 발간 학회지는 2월 15일, 7월 발간 학회지는 5월 15일, 10월 발간 학회지는 8월 15일에 접수 마감한다(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15일 자정 정시 마감).
3. 논문 접수 시 모든 투고지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4. 원고가 게재되는 순서는 원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 게재는 동일저자의 경우 호당 1편만 게재할 수 있다(단독연구 해당).
6.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전송권은 한국육아지원학회에 귀속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약간 명을 구성하여 학회장의 임명을 받는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는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제재 및 후속조치 등을 협의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학회지 투고 규정 준수여부, 학술지 및 학회 발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의뢰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소속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육아지원연구 투고 시 3인의 심사 중 1인의 심사를 면제한다(단, 학술대회 발표 후 1년 이내에 투고하여야 혜택이 유효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논문주제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 연구문제 및 연구 내용의 적절성
- 문헌분석 및 인용의 충실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정확성
-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4. 논문심사는 접수 후 7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투고 논문의 심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6. 심사 판정결과 ‘수정후 게재가’를 받은 투고논문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충실히 투고 논문을 수정할 경우 게재확정을 받을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은 수정 후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 4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를 받은 경우 수정을 거쳐 게재확정을 받을 수 있다.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하여 동일 심사위원 3인의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한다.
7.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심사자의 수정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투고자가 수정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8.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도 연구물의 중복 게재가 확인되거나 연구결과의 허위생성 및 조작, 연구내용을 표절이 확인되면 게재불가 처리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린다.
9.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논문투고 규정

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접수 및 발행 시기

논문	1호	2호	3호	4호
투고마감일	11월 15일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발간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3.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가입: 육아지원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혹은 학회메일(ksecec@hanmail.net)로 제출

심사비 납부: 100,000만원 (재심사비: 심사 1인당 30,000원)

하나은행 519-910002-35505

사단법인 한국육아지원학회

4. **투고 논문**은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5. **석·박사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논문의 일부 요약본의 경우 원고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6. 논문 접수 및 확인 방법

- (1) 논문 접수는 편집부 메일 ksecec2@hanmail.net로 받는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5일이내로 '투고 논문 접수 안내' 공문을 메일로 발송하고, 투고자는 논문접수를 확인한다.
- (3) 논문접수와 관련된 문의는 편집위원회 메일(ksecec2@hanmail.net)을 이용한다.

7. 투고요령

- (1) 원고 제출시 '육아지원연구 논문투고서'(서식)를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교신저자의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하고, 논문 본문에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육아지원연구 논문투고서 2016 참조)
- (2) 투고논문은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육아지원연구 편집파일 2016 참조)
- (3)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주제어(국문, 영문/ 2-4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주제어: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4) 논문의 분량은 육아지원연구 편집양식에 따라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30쪽 내외로 한다.

8. 논문 게재 및 제반 비용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 후 1차 교정은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편집부가 담당한다.
- (2)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경우 30만원이며, 분량(17쪽)을 초과하는 경우 인쇄 쪽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별쇄본은 20부를 제공한다.

9. 게재 윤리규정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한국육아지원학회 연구윤리규정 참조)

제 7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016.6 ~ 2017. 12)

고 문(전임회장)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정미라(가천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문연심(강남대학교) 이윤경(서원대학교)	
회 장	심성경(원광대학교)	
수석 부회장	성원경(우송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경기·인천권	박희숙(강남대학교)	
충청·대전·강원권	김신영(백석대학교)	
경상·대구·부산권	한미라(경남대학교)	
전라·광주·제주권	이정숙(전주기전대학교)	
상임이사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학술이사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정가윤(명지대학교)
연구이사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편집이사	진명희(광주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출판이사	이명희(중부대학교)	조인경(대전과학기술대학교)
홍보이사	김난실(명지전문대학)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사업이사	신상인(신우유치원)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서기이사	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이선경(송원대학교)
감 사 이 사	조경자(호서대학교)	권용은(안산대학교)
	강수경(가천대학교)	강숙현(순천제일대학교)
	고경미(송원대학교)	곽아정(연성대학교)
	곽향림(호원대학교)	권이정(서원대학교)
	김경의(군장대학교)	김나림(전주비전대학교)
	김민정(충청대학교)	김보영(IBK어린이집)
	김소영(서해대학교)	김수영(대구카톨릭대학교)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김승옥(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정원(한국성서대학교)	김지영(호남대학교)
	김진화(순천제일대학교)	김향자(명지전문대학)
	김현자(두원공과대학교)	김희진(이화여자대학교)
	마지순(원광보건대학교)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박순호(대구보건대학교)	박유미(혜전대학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박정선(명지전문대학)
	박찬수(우송정보대학교)	박해미(경민대학교)
	백영애(전남과학대학교)	변길희(전북과학대학교)
	부성숙(경기대학교)	성소영(안양대학교)
	손복영(신성대학교)	손수연(서울여자대학교)
	손순복(동서울대학교)	송화진(전주비전대학교)

이 사

심은희(백선문화대학교)
오완숙(서울 장충유치원)
유구중(강릉원주대학교)
이경화(성결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영주(전주비전대학교)
이지현(건국대학교)
이현숙(경북대학교)
임부연(부산대학교)
임은미(성결대학교)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정은경(백석대학교)
조영례(즐거운유치원)
최대훈(서원대학교)
최연철(한국교원대학교)

안경숙(호원대학교)
안연경(건양대학교)
원계선(제주한라대학교)
유수경(울산과학대학교)
이방실(오산대학교)
이영미(동덕여자대학교)
이영희(서해대학교)
이진화(배재대학교)
이현옥(성결대학교)
전선옥(한림성심대학교)
정영희(수원여자대학교)
정은주(우송정보대학교)
조화연(혜전대학교)
최명희(신구대학교)

간 사

박정은(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윤희(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연 수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제 :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도전과 발전
- 일시 : 2016년 11월 4일 (금) 14:00 ~ 18:00
- 장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

2016년 11월 4일

한 국 육 아 지 원 학 회 장



C Memo

C Memo